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발행인 박정운 / 편집인 겸 주간 정은귀 / 편집장 김상연

hufspress.net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신문사 TEL.02-2173-25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기획] >> 3면 학내 공용시설 오염 문제 [기획] >> 5면 AI 융합대학 신설

[사회] >> 9면 확산되는 '노 존(No Zone)' [학술] >> 12면 불법 콘텐츠 사이트 저작권 문제



### 우리학교 대만연구센터, 대한독립 4대 의사 학술회의 개최해

지난 13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 성된이번 발표는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제1세 (Minerva Complex) 국제회의실에서 '순국선열 안중근, 조 명하, 이봉창, 윤봉길 의사 재조명 - 대한독립 4대 의사 학 술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우리학교 대만연구센터 와 조명하의사연구회 공동 주최하에 중화인민교육부와 주한타이베이교육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다.

국내 최초로 대한독립 4대 의사의 의거를 되새기고자 마 련된 이번 행사엔 조명하 의사의 장손 조경환 씨가 참석 했다. 조명하 의사는 1928년 대만에서 일본 육군 대장인 구니노미야 구니요시를 척살하는 등 대한독립을 위해 헌 신했다. 주요 인사론 △강성웅 YTN 해설위원실 실장△경 익수 전 대전대학교 부총장△구양근 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권오성 육군협회장△도진순 창원대학교 교수△민 형우 아송문학회 회장△반병률 우리학교 사학과 명예교 이 이사)△조영현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조득창 협성대 학교 교수△최광호 한양대학교 겸임교수△한지연 중앙 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4대 의사의 업적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구

션에선 김정은 우리학교 중국어교육과 교수와 김주용 원 광대학교 교수가 각각 '대중과 미디어의 이봉창 의사 수용 연구'와 '조명하 의사 연구 현황 및 현창 사업과 괴제'란 논 문을 토대로 발표를 진행했다. 제2세션에선 이 이사의 '매 헌 윤봉길 의사의 생애와 업적'△황재문 서울대학교 교수 의 '불멸, 영웅, 하얼빈:안중근의 세 가지 형상'△김상호 대 만슈핑과기대학교 교수(이하 김 교수)의 '조명하 의사를 중심으로 한 1920년대 대만의 시대 상황과 일제의 역사 왜곡' 순으로 발표가 이어졌다.

회의를 준비한 임대근 대만연구센터장은 "그동안 조명 하 의사에 대한 사료가 많지 않아 학문 연구나 홍보활동 등 현창 사업이 부진했으나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그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 수△이성섭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상임이사(이하 다. 발표를 진행한 김 교수는 "4대 의사가 진정으로 조국 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점을 재조명하 고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조국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 해보고자 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 비 기자 04hanbi@hufs.ac.kr

### 우리학교 핸드볼부, 제 52회 동문기 쟁탈 교내 핸드볼 대회 개최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오바마 게 돼 주장으로서 준비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지난해 동문기 쟁탈 교내 핸드볼 대회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 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이

후 지난해 제51회 대회로 재개됐다. 이번 대회에는 남자부에 △경영학부△네덜란드어과△ 독일어과△베트남어과△터키어과△태국어과△학군단 (ROTC)△한국어교육과△행정학과△LD학부, 여자부엔△미 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베트남어과△터키어과△태국어 과△한국어교육과△행정학과가 참가했다. 남자부는 경영학 과가 우승했으며 2위와 3위는 각각 네덜란드어과와 베트남 어과가 차지했다. 여자부에선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가 우승했고 2위와 3위는 각각 행정학과와 베트남어과가 차지 했다. 남자부 우승팀 경영학과 주장인 임필호(경영 22) 씨는 "대회 경기를 치를수록 팀원 간 연계가 끈끈해져 우승할 수 있었다"며 "팀원들과 즐겁고 열심히 대회에 임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대회를 주관한 우리학교 중 앙동아리 핸드볼부 주장 최승원(서양어·독일어 22) 씨는 "지 난해에 이어 두 번째 동문기 쟁탈 교내 핸드볼 대회를 치르

홀에서 '제52회 동문기 쟁탈 교내 핸드볼 대회'가 개최됐다. 에 비해 대회참가 인원과 핸드볼부원이 늘어 대회를 성공적

대회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엔 핸드볼부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친선 경기와 시상식이 진행됐다. 시상식엔 핸드볼부 동 문회장을 비롯한 핸드볼부 졸업생들이 참석했고 핸드볼부 졸업생 정용회(아시아·베트남어 08) 씨가 사회를 맡은 가운 데 △개회사△동문회장 인사말△기념품 전달△시상식△장 학금 수여△폐회사△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핸드볼부 동문회장 박상준(중국·중국어 88) 씨는 "코로나19로 대회 진 행에 있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핸드볼부의 노력으로 다시 개회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학교 핸드볼부는 지난 1961년 창설된 이래로 교 내외 여러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지난해 핸드볼부는 제13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생활체육 핸드볼 대회 및 제37·38회 서 울특별시협회장기 종별 핸드볼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 특 히 제38회 서울특별시협회장기 종별 핸드볼선수권대회에 선 여자부 3위를 수상한 바 있다.

김상헌 기자 06heon@hufs.ac.kr



#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우리학교 방문해

지난 12일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 미국 대사(이하 골드 버그 대사)가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을 방문해 학생들과 타운홀 미팅 (town hall meeting)을 가졌다. 김진아 우리학교 LD학부 학부장의 사회로 막을 연 이번 행사는 'The U.S.-ROK Alliance at 70 (한미동맹 70주년)'을 주제로 한 골드버그 대사의 강연과 학생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 번 행사는 골드버그 대사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양국 정상회담 직후 진행한 첫 번째 연설이다.

골드버그 대사는 우리학교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와 세계 현안의 복잡 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에 주목하며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강연에서 이번 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 양국관계가 진정한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양국 간 공동의 번영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이 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양국이 포괄적 동맹에 관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한 후 학생들에게 주어질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보였 다. 그는 "한미동맹이 뉴스에서 듣는 추상적인 관계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향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의 기념촬영 모습 (출처: 우리학교 전략홍보팀)

적극적으로 학업과 진로에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질의응답에선 단순한 한미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국제 정세 속 에서 양국을 조명한 여러 질의가 나왔다. 강연이 한일 정상회담 직후에 진 행된 만큼 최근 한일관계에 대한 행보와 미국 행정부의 평가에 관한 질문 도 제기됐다. 장서연(통번역·한영과 23) 씨(이하 장 씨)는 급증한 북한의 안보 위협 문제에 관해 비핵화를 위한 양국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질의했 다. 이에 대해 골드버그 대사는 "러시아와 중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극복 하고 설득하기 위해선 다방면을 고려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 다. 골드버그 대사는 전반적인 답변 아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굳건한 동맹 관계와 그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언급하며 양국 간 안보를 비롯한 공 동 목표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씨는 "강연 내용 중 골드버그 대사 가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의 성취에 특히 주목하면서 양국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비 기자 04hanbi@hufs.ac.kr

#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한국고용정보원장 초청 특강 개최해

지난 4일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학생·인재개발처 대학일자 리플러스본부는 글캠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 원장(국제지역·아프리카 83)(이하 나 원장)을 초청해 '챗GPT(ChatGPT)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역량 개발'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대학일자리플 러스본부 취업역량 강화 특강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우리학교 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 HUFSAbility를 통해 특강 당일까지 사전신청을 받아 진행됐다.

강연을 주최한 문영훈 글캠 진로취업지원센터 대리는 "지난 4월 개최된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 협의회에서 나 원장의 강의를 듣고 이를 우리학교 학생에게도 들려주고 싶어 주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재학생에게 도움 이 될 수 있는 최근 산업 경향에 관한 주제로 특강을 추진해 제공할 예정 이다"고 전했다.

이번 특강에서 나 원장은 챗GPT에 직업상담사와 특정 분야의 전문가 역 할을 부여해 반복적이고 심층적인 질문으로 진로 상담 효과를 얻는 방안 을 학생들에게 소개했다. 또한 챗GPT로부터 얻은 분석 결과를 학생 자신 이 목표로 하는 직무와 직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그 준비 방법을 안



▲한국고용정보원 나영돈 원장 초청 특강 모습 (출처: 전략홍보팀)

내했다. 나 원장은 인공지능 시대에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로 △디 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자율성△지속성 등의 소프트스킬(Soft Skill)을 제안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최근 개발한 인공지능 경력 관리 서비스 잡케어(Jobcare)를 소개하며 해당 서비스가 챗GPT와 유사 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챗GPT와 잡케어를 연계할 시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진행하는 워크넷 취 업정보와 HRD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소개했

이날 특강엔 아프리카학부와 중앙아시아학과 등 재학생 70여 명이 참석 해 인공지능 시대 진로 개발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 었다. 특강에 대한 익명 만족도조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인공지능을 진로 직업상담사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오늘 배운 인공지능 사용 방법과 유의점이 앞으로 진로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사고할 때 도움 이 될 것 같다"고 응답했다. 또 다른 학생은 "챗GPT를 어떻게 활용해야 효 과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이번 특강을 통해 배울 수 있어 만족스럽다"며 소감을 남겼다.

김상헌 기자 06heon@hufs.ac.kr

### 우리학교 우크라이나어과, 우크라이나 전쟁포스터 전시회 개최해

지난 9일부터 우크라이나 전쟁포스터 전 시회의 사전전시가 막을 열었다. 이번 전시 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소개 하고 조속한 종전과 평화를 기원하고자 개 최됐다. 우리학교 우크라이나어과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김희준 더화이트호텔 회장 겸 우크라이나 명예영사가 후원했다.

전시회는 순회 전시의 형태로 △시전전 시△주요전시△전시 및 토크 순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사 전전시에선 디지털 아트 형식으로 사진과 영상작품 40여 점이 공개됐다. 지난 13일부 터 진행된 주요전시는 오는 27일까지 개최 된다. 전시 및 토크 행사는 우리학교 글로

벌캠퍼스 백년관 2층 케이존(K-Zone)에서 이번 달 30일부터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시기 포스터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특별 강의와 토론도 케이존에 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의 포스터는 전쟁의 폭력성과 반인륜적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포스터 전시회

▲우크라이나 전쟁포스터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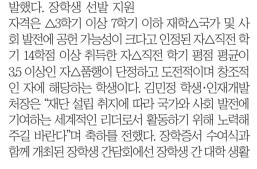
범죄를 고발하면서 △민주주의△인권△ 주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 시회에 소개될 총 60여 점의 전쟁 포스터 는 키이우 국립문화예술대학(Kyiv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e and Arts)과 키이우 문 화대학(Kyiv University of Culture)에서 진 행한 프로젝트 '창의적 저항'의 결과물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두 대학교의 그래픽 디 자인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보편적 민주 주의△애국적 입장△침략에 대한 저항의식 에 입각해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전 시회엔 전쟁 포스터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문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공예품△사진△ 서적 등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홍석우 우리학교 우 크라이나어과 학과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 국민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나아가 전쟁에 대한 우크라이나인들의 △고통△분노△비 전△희망에 대해 이해하면서 모두 함께 종전과 평화를 기원 할수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 비 기자 04hanbi@hufs.ac.kr

### 동원그룹리더십장학재단 장학생 간담회 및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돼

지난 11일 우리학교 서울캠 퍼스 이문일공칠에서 '2023 학년도 1학기 동원그룹리 더십장학재단 장학생(이하 동원장학생) 간담회와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됐다. 이번 학기 동원장학생 모집 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이뤄졌으며 글로 벌캠퍼스 재학생 2명을 선





▲2023학년도 1학기 동원그룹리더십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모습 (출처: 전략홍보팀)

성공담과 봉사활동 사례를 공 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졸업한 장학생과 재학 중인 장 학생 간의 소통을 도모하고 단 체 봉사를 통해 사회에 이바지 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 눴다.

한편 재단법인 동원그룹리더 십장학재단은 지난 2007년 국 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리더를 양성하고자 설 립됐다. 동원장학생은 선발 이후 졸업 시까지 매 학 기 250만 원의 장학금을 생활보조비 명목으로 지원 받으며 학기당 1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학기엔 이전 에 선발된 장학생 3명을 포함해 총 5명의 동원장학생 이 장학금을 받는다.

김상헌 기자 06heon@hufs.ac.kr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3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 1.2023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3.04.17(월) ~ 05.01(월)	2023.05.15(월) ~ 05.29(월)
고사장 발표	2023.05.10(수) 15:00	2023.06.07(수) 15:00
면접전형	2023.05.13(토) 10:00 예정	2023.06.10(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3.05.25(목) 15:00	2023.06.22(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3.05.29(월) ~ 06.02(금)	2023.06.26(월) ~ 06.30(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공지)

#### 7.기탁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 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다. 현직 교사 장학금(매학기 지급)

라. 학점 인정 혜택 (한국외대TESOL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관련 석사학 위소지자, TESOL자격증 취득자)

마. TESOL연구과정(자격증 과정)수료자 우대

바. 복수학위프로그램(템플대학교), 3+1프로그램(하와이대학교) 사. Internship프로그램(샌디에고, 하와이)

#### 아. 추가학점이수트랙신설(논문·졸업연구보고서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 8.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 9.한국외국어대학교TESOL대학원교학과

TEL.02-2173-3521~2FAX.02-2173-358 (우)02450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로107



#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 2023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 1. 2023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3.04.21(금) ~ 05.04(목)	2023.05.22(월) ~ 06.02(금)
고사장 발표		
	05.11(목) 15:00	06.08(목) 15:00
면접전형	05.13(토) 10:00 예정	06. 10(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05.25(목) 15:00	06.22(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05.29(월) ~ 06.02(금)	06.26(월) ~ 06.30(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 일정은 정원 충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특별전형은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0(4,5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 문학 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라. KFL 문화 간 소통 전공(협동과정)

####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기,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금 학기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인 경우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 4. 접수방법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STEP 1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 세출시규 가. 공통제출 서류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 가능)

- 3) 대한 족언(예정)증명서 1부(워보)
-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 8) 재정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 1)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 불합격 처리됩니다.
- 7. 전형장소: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 8. 기타사항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 나. 최소 3학기로 조기 졸업 가능(학업우수자)
-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한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학과)
-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I 대학원 교학과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 꾸준히 오염되는 학내 공용시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난제

무분별한 이용으로 오염된 교내 공용시설은 우리학교의 구성원들의 쾌적한 생 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 리타임(이하 에타)엔 쓰레기 무단투기 및 무책임한 시설 이용으로 교내 공용시 설이 오염되고 있다는 항의글이 꾸준히 게시됐다. 특히 양 캠퍼스(이하 양캠)

게시판에선 학내 △분리수거함△취식공간△휴게실의 오염에 대해 문제 제기 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의 오염된 공용시설의 실태△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오염된 공용시설의 실태△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 해 알아보자.

#### ◆서울캠퍼스의 오염된 공용시설의 실태

지난 1일 우리학교 에타 설캠 자유게시판엔 학내 구성원이 쓰레기를 무분별 하게 투기하고 이용한 자리를 치우지 않아 공용시설이 오염되고 있다는 항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은 설캠의 스마트도서관 열람실 이용자들이 지우 개 가루와 샤프심 조각 등을 치우지 않고 열람실 밖에선 무질서하게 쓰레기 를 버려 도서관의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제보였다. 학생들이 쓰레 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쓰레기가 넘치는 난잡한 광경이 담긴 사진 도 함께 첨부돼 학생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설캠 도서관 건물은 매주 일요일 오전에 청소 근무자 한 명이 출근해 쓰레기통 및 화장실 청소를 한다. 하지만 시험기간엔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는 인원이 증가하면서 층마다 설치된 쓰 레기통뿐만 아니라 화장실 내의 쓰레기통도 온갖 폐기물로 가득 차 청소 근 무자 한 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도서관 이용 규정상 도서관 입 장 시 일회용 플라스틱 잔 반입이 금지되고 있지만 실상은 많은 학생이 이를 어기고 열람실에 출입한다. 결국 쓰레기통 수용량을 넘어선 쓰레기 배출과 방치된 음료 잔여물이 열람실 근처 휴게공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됐다. 심지 어 설캠엔 일회용 컵 전용 수거함이 구비돼 있음에도 일회용 컵이 무분별하 게 버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일회용 컵 전용 수거함에 다 른 이물질이 들어가 일회용 컵 전용 수거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에 김근아(중국·중외통 22) 씨는 "밤늦게 도서관에 공부하러 갈 때마다 화장실 및 열람실 앞 쓰레기통이 온통 플라스틱 컵 및 쓰레기로 가득 해 악취 등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청소 근무지를 마주치면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캠퍼스 내 공용시설엔 분리배출에 용이한 쓰레기통이 배치돼 있지도 않다. 도서관 내엔 캔·병류와 일반쓰레기로 구분된 쓰레기통이 층별로 비치돼 있 지만 플라스틱 분리배출을 고려하지 않은 쓰레기통이라 세부적으로 나눠지 지 않다는 한계가 드러난다. 심지어 스미네르바 콤플렉스(Minerva Complex) △법학관△인문과학관 등의 건물에선 불안정하게 놓인 간이 쓰레기통을 통 해 임의적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열악한 환경이 나타나고 있었다. △괴방△ 동아리방△학생회실이 밀집된 국제학사의 경우 층마다 △일반쓰레기△일반 폐지△캔·병류△플라스틱 칸으로 나눠져 비교적 세분화된 쓰레기통이 비치 돼 있고 2층과 4층엔 음식물 쓰레기 배출함이 놓여 있다. 하지만 청소 근무자 가 없는 시간대엔 청소가 이뤄지지 않아 쓰레기통이 넘치는 상황이 자주 발 생하는 것이 확인됐다. 국제학사 청소 근무자 A 씨는 "국제학사 사용 인원 대 비 음식물 쓰레기 배출함과 분리수거통이 작아 출근할 때 보면 항상 쓰레기 가 넘쳐나고 주변 공간이 오염돼 있다"며 "쓰레기 분리배출도 전혀 되지 않아 청소 근무자들이 쓰레기를 직접 분리하는 편이다"고 토로했다. 도서관에서 오염된 공용시설의 문제가 두드러지지만 이외에도 설캠 곳곳에서 쓰레기 분 리배출 미흡으로 공용시설이 오염되고 있는 실태가 피익됐다.

#### ◆글로벌캠퍼스의 오염된 공용시설의 실태

글캠의 경우 비교적 방대한 기숙사 시설 및 지리적 요건으로 인한 공용시설 문제가 두드러진다. 기숙사 훕스돔(Hufs dorm)엔 각 층마다  $\triangle$ 일반쓰레기 $\triangle$ 재활용품△폐지 수거함으로 구분된 쓰레기통이 구비돼 있지만 재활용품 쓰 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가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분리배출

시 혼동이 올 수 있다. 교내 청소 근무자 B씨는 "명목상으로는 재활용품과 일 반쓰레기로 나뉜 쓰레기통이지만 훕스돔을 제외한 글캠 내 모든 건물에서의 분리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쓰레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 다. 또한 현재 우리학교 학내 시설물 이용 규정 및 기숙사 생활 규칙에 따르면 시설 피손 행위 금지와 관련된 조항은 존재하지만 공용시설을 오염시키는 행 위에 관해 제재하는 조항은 미비한 상태다. 특히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한 명 확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의 부재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실 제로 지난 3월 에타엔 훕스돔 식당 옆에 위치한 편의점 취식공간 위생상태를



▲시험기간 설캠 도서관 내 열람실 앞의 쓰레기통

고발하는 글이 게재됐다. 취식공간에 비치된 일반쓰레기통에 음식물을 섞어 버리거나 쓰레기를 무단투기해 추후에 취식공간을 사용할 학생들에게 피해 를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훕스돔 식당 옆에 위치한 GS25 근무자 C 씨는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공용시설임을 무시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더 럽혀 건물 내 악취가 심해지고 외관상으로도 문제가 많아졌다"며 "학생들이 의식적으로 청결관리에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과방 및 동아리방이 존재하는 △어문관△인문경상관△학생회관 등의 건물 내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함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19 이후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과방과 동아리방에서 학생의 취식이 잦아졌다. 더욱이 글캠 학생들 중엔 주변 상권이 활성화돼 있지 않고 방대한 캠퍼스로 인해 이동이 불편해 배달음식으로 취식하는 비율이 높다. 그런데도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이 마련돼 있지 않아 쓰레기통 위엔 늘 음식물 이 가득하다. 글캠 청소 근무자 D 씨는 "플라스틱과 일반쓰레기가 뒤섞인 쓰 레기통을 일일이 솎아내는 것도 힘들지만 학생들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 를 처리하는 것이 더 손이 가는 일이다"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통이 없 으니 학생들이 화장실에 막무가내로 버리는 일이 많아 화장실을 수리해야 하 는 일도 빈번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글캠 시설관리팀 관계자는 "학내 취식 문제로 인한 민원 제기가 종종 있는 편이다"며 "편의점 및 학교식당 이외에서 의 취식은 학칙 위반사항인데 음식물 쓰레기 배출 문제로 학내 구성원들이 고충을 겪는지 몰랐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취식이 가능한 장소에 대

한 안내를 문자로 고지할 계획이며 교내 환경 미화 재정비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나아가야 할 방향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대학교 내 쓰레기 혼합 배출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 각해질 문제다"며 "대학교가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 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음식물 제로화 사업△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캠페 인△캠퍼스 환경 보존을 위한 안내판 설치△0텀블러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학 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업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중 0텀블러 프로젝트 실시 이후 일회용 컵 사용량이 695개 줄었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 출했다. 더불어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부스를 열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환 경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설캠 총괄지원팀은 "학생들이 분리수거 및시설사용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기획해 볼 예정이다"고 답했 다. 또한 설캠 시설관리팀은 학생들의 불편함을 인지해 국제학사 건물에 격 층으로 비치돼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3층에 추기배치할 예정이며 청소 근 무자 퇴근시간 전 쓰레기통 및 주변 청소를 최대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글캠 학생지원팀 관계지는 "교내 쓰레기 배출에 대한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 및 자료를 제작해 학생들에게 교내 규정을 확 실히 인지시키겠다"며 "특히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용시설 앞에 기존의 쓰레기통보다 세분화된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학내 분리배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학내 공용시설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학생회의 역할이 중요하 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방채원(자연·생명공학 22) 씨는 "교내공간을 쾌적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회 치원에서 학생들을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동서대학교 제24대 총학생회는 '이슬이슬(아이스 슬쩍 버리 면 아주머니 슬퍼요)' 캠페인을 기획했다. 해당 학생회는 캠퍼스 내 쓰레기통 100곳 옆에 음료와 얼음을 따로 버릴 수 있는 통을 따로 마련해 안내 문구와 함께 학생들에게 홍보했다. 그 결과 학내 무단투기된 쓰레기양이 줄었고 플 라스틱 분리배출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졌다. 이에 설캠 제57대 총학생회장 배귀주(상경·국통 20) 씨는 "매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해 분리수거 캠페 인 및 환경 보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사를 학우들에게 알리기 위해 학생사회 내에서도 노력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또 한 "유관 부처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개선점을 하루빨리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용시설을 깨끗이 사용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글 캠 시설관리팀 관계자는 "계약된 업체로 보내진 폐기물들이 추가적인 분리 작업에 들어가긴 하지만 학생들이 일차적으로 분리수거를 잘한다면 교내 청 소 근무자들도 효율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설캠 시 설관리팀 관계자도 "열람실이나 휴게공간에 놓인 음료 컵 등을 학생들이 주 체적으로 내용물을 비운 후 분리해 배출해준다면 쾌적한 교내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학내 공용시설의 오염수준은 꾸준히 지적되는 문제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부각된다. 학 내 구성원이 시안에 대한 경각심을 깨닫고 함께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연아 기자 06znchung@hufs.ac.kr



#### 2023년 정기시험 안내

FLEX(Foreign Langauge EXamination)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수년간의 개발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외국어능력시험으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입니다.

#### 1. 2023년 FLEX 정기시험 일정

	78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 발표일	
	구분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1호	02.16~02.22	03.19	04.07(금)	04.21(금)
	2호	04.27~05.03	05.28	06.16(금)	06.30(금)
	3호	08.10~08.16	09.10	09.29(금)	10.13(금)
	4호l	10.05~10.11	11.05	11.24(금)	12.08(금)

- ※ 원서접수 마지막날의 마감시간은 18:00입니다
- ※ 고사장, 응시 과목에 따라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FLEX 듣기·읽기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민간자격이며, 말하기, 쓰기는 등록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2. **응시자격** : 제한없음
- 3. 평가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1개 언어 선택 응시 (동시에 2개 언어 응시 불가)
- 4. 원서접수: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접수 가능 http://license.korcham.net
- **5. 응시료** : 듣기·읽기 45,000원, 말하기 75,000원, 쓰기 75,000원
- ▶ 접수 수수료 : 1,200원
- ▶ 수험료 환불규정 : 접수 기간 내 100% 환불 접수마감 이후~시험일 5일전 50%환불, 접수 수수료 환불 불가 시험일 4일전 이후 환불 불가

#### 6. 결과발표

- ▶ 확인처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http://license.korcham.net (문의) 02-2102-3600
- ▶ 성적유효기간:시험일로부터 2년 재학생 iBT FLEX(영어, 중국어) 응시 자격 : iBT 시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FLEX 정기시험(해당 언어)에 응시한 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야간) 2023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 1.2023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3.04.14(금) ~ 05.01(월)	2023.05.12(금) ~ 05.29(월)
고사장 발표	2023.05.10(수) 15:00	2023.06.07(수) 15:00
면접전형	2023.05.13(토) 10:00 예정	2023.06.10(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3.05.26(금) 15:00	2023.06.23(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3.05.29(월) ~ 06.02(금)	2023.06.26(월) ~ 06.30(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공공감사·정책학과(공공정책, 공공감사)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국가안보) 다, 융합미디어콘텐츠학과(융합미디어콘텐츠)

####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 기.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너. 답당에 띄하여 이와 등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지원자격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등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군사 안보 전문 분야에:군, 정보기관, 국가 안보 분야 등)에서 최소 0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보유한 자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정치행정언론대학원 홈페이지-입학안내-대학원 입학 안내-대학원 원서접수)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6.전형장소:서울캠퍼스(자세한고사장및고사실은추후공지)

#### 7.기탁사항

- 가. 장희금 ("장희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 됨)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공로 장학금 학비감면 장학금 원우회 임원 장학금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자를: 입학적 전원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
-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 본 대학원 내 학과간 교차수강 가능

#### 다. 온라인 병행수업 진행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p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

TEL, 02-2173-2428,2429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 불안정한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진정한 학생자치를 위해선

현재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는 제44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비상대 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학생자치가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비상대책위원 장(이하 비대위원장)과 부비상대책위원장(이하 부비대위원장)의 사퇴로 권한대 행이 총학 대표자로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총학의 불안정성은 학생자치의 단절로 이어지기 쉽다. 기사를 통해 △글캠 제44대 총학 비대위 타임라인△불안정한학생자치가 불러온 여파△진정한학생자치를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 ◆글로벌캠퍼스 제44대 총학생회 비상대 책위원회 타임라인

지난해 11월 우리학교 글캠 제44대 총학 선거가 무산되며 글캠 총학 생회칙 제54조 제1항에 따라 글캠 비대위원장 및 부비대위원장 선출 이 실시됐다. 이에 이번 해 1월 오태경(융인·19) 전 비대위원장(이하 오 씨)과 이승원(통번역·독통 20) 전 부비대위원장(이하 이 씨)을 주도로 하는 제44대 총학 비대위가 임기를 시작했다. 글캠 총학생회칙 제56조에 의거해 집행위원회와 총학에 준하는 업무 권한을 갖는 비대위가 글캠 학생사회의 자치기구로서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그러나비대위는 우리학교 학생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총학과 달리 글캠 총학생회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확대운영위원의 간접선거로 선출되기에 조직의 정당성과 비대위원장 및 부비대위원장의 대표성이 총학에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한계를 지닌다.

비대위 임기가 시작된 지 2개월 후인 지난 3월 글캠 제44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총학을 정식으로 구성하기 위해 글 캠 제44대 총학 보궐선거를 시행하고자 했고 오 씨와 이 씨는 보궐선 거 예비 입후보자 등록을 위해 각각 비대위원장과 부비대위원장을 사 퇴하고 출마를 결정했다. 그러나 입후보자 등록 당일 중선관위는 선 거시행세칙 제8조 제4항에 규정된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 항목인 △ 입후보 등록 시점까지 입후보자가 공정하게 선거를 준비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제출한 구비서류 및 추천인명부△그 외 기타 사안 중 '기 타 사안'을 근거로 입후보자 자격 심사에서 해당 안건을 부결했다. 입 후보자 측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자 중선관위는 입후보자 자격 심사 에 대해 규정한 선거시행세칙 제8조의 세부 조항들이 단순한 서류심 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중선관위는 선 거시행세칙 조항들의 유권해석 문제와 세칙상의 오류 등을 인정하며 세칙을 개정한 후 일련의 총학 보궐선거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공지했 다. 그러나 입후보자와 중선관위 간 갈등 이후 입후보자가 후보직에 서 사퇴하며 글캠 제44대 총학 보궐선거가 무산됐다. 총학이 궐위되 는 상황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결국 글캠 총학생회칙 제49조에 명시된 권한대행 규정에 따라 이예 준(자연·화학 18) 총학 비대위 중앙집행위원장(이하 이 위원장)이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됐다. 또한 오승기(통번역·스통 18) 통번역대학 비대위원장이 글캠 총학 부비대위원장 대행을 맡게 됐다. 부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인준한 사안으로 중대한 안건을 심의하는 학교당국과의 회의에서 학생의 입장을 대변할 학생 대표자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렇듯 글캠 학생사회에선 제44대 총학 선거가 무산된 이래로 총학이 구성되지 않아 비대위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글캠 학생자치기구 내외에선 크고 작은 논란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잡음이 일고 있다.

#### ◆불안정한 학생자치가 불러온 여파

글캠의 불안정한 학생자치 운영 체제로 글캠 내부뿐만 아니라 우리학교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평의)와 같은 기구의 활동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대평의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사립학교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6△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정관 제123조~129조에 근거해 설립된 기구로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평의는 △교수△직원△학생△동문 등 교내외 구성단위단체의 추천에 의거해 총장이 위촉한 11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양 캠퍼스에서 각각 한 명의 학생 대표가 우리학교 대평의에 평의원으로 소속돼 있다.

우리학교 대평의 2023학년도 제1차 회의록과 제2차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3월 오 씨는 글캠 총학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고 이에 따라 4월 7일 중운위는 A 씨를 새로운 평의원으로 추천하는 공문을 학교 측에 제출했다. 그러나 중운위는 해당 공문을 공식 경로인 학생지원팀 (이하 학생처)를 통해 송부하지 않고 대평의 간사의 개인 메일을 통해 전달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의 직인이 필요했으나 공문에는 직인도 찍혀있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진행된 2023학년도 제1차 대평의 회의에서 오 씨는 글 캠 학생 대표로 참석했다. 그러나 해당 회의에서 일부 평의원에 의해 오 씨의 대표성 결여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 3월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한 오 씨를 과연 학생 대표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이 대립한 것이다. 학교 측은 오 씨가 비대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했고 그것이수리됐기에 평의원직 사임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

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씨는 비대위원장 사퇴는 오직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것이지 학생 대표로서의 책임을 내려놓기 위함은 아니라며 이미 총장의 허가하에 평의원으로 등록된 상황에서 학생 대표로서의 자격 박탈은 부당한 처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새로운 평의원을 추천하는 공문이 글캠 비대위가 아닌 중운위에서 송부한 문서이기에 해당 추천인도 대표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평의원 자격 여부 논의로 제1차 평의원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지난 4월 21일 1-2차회의가 추가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1-2차회의에서도 평의원 대표성 문제로 인해학최 개정(안)심의에 차질을 겪었다. 이에 대평의는 학생대표 평의원 관련공식 행정 절차를 제2차대평의회의 전까지 유관부서로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회의 이후 해당절차를 밟는 과정 중 A씨의 문서위조 논란이 발생해학생 대표 평의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차 대평의 회의에선 지난 1-1차 회의 때 글캠 학생 대표로 참석했던 오 씨 대신 이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해당 회의에선 A 씨의 독단적 직인 처리 논의와 함께 글캠 학칙 개정 (안) 심의가 이뤄졌다. 대평의 회의 결과 '2024학년도 학제개편 관련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글로벌캠퍼스)'는 △전체교수회와 단과대학교수회의 심의의결 절차 미준수△불충분한 학내 구성원들과의 대화 및 설득과정△미비한 교원확보계획 및 예산확보계획 △유사중복 학문분야 문제 야기 등의 이유로 부결됐다. 그러나 부결다음 날인 28일에 진행된 학교법인 이사회의에선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가결돼 학교 측은 당일 학칙개정을 공포했다.

한편 A 씨의 문서위조 논란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대한 의견대

###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제44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입니다.

2023년 3월 30일, 본 중앙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대학평의원회 추천인 관련해서 재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재논의 사유로는 기존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추천 대학평의원직을 맡고 있던 전 비상대책위원장 오태경 학우의 사퇴로 인해, 과연 글로벌캠퍼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학평의원을 추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운영위원이며, 통반역대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오승기 학우가 총원 8명, 찬성 8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추천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학평의원직을 맡고 있는 오태경 학우는 사임서 제출을 하지 않으며, 본 사안에 대해서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캠퍼스 학생사회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원이 출석해야하는 자리에 글로벌캠퍼스 학생사회로부터 더 이상 추천을 받지 못하는 인원이 대학평의원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본 입장문을 통해 밝힙니다. 본 중앙운영위원회는 전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오태경 학우의 직책 사퇴로 더 이상 추천하지 아니하며, 오승기 학우를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추천으로 대학평의원을 추 처하는 HIQUIT

2023.04.07.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제44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일동

▲글캠 제44대 총학 중운위가 지난 4월 배포한 대학평의원 추천 입장문 (출처: 중운위)

립도 발생했다. 대평의는 A 씨를 대상으로만 징계위원회를 열고자 하는 학생처에 반대했고 대평의에서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갖춰 진상 규명을 하고자 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 없이 학생처가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문서위조는 최소무기정학에 해당하는 사안이기에 조사와 처벌에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학생처는 법률 자문을 통해 대평의가 자체적인 조사위원회를 열 자격이 없다며 반박했다. 또한 학생 징계의 경우교원 징계와 달리 따로 조사위원회를 둘 수 없어 징계위원회에서 조사까지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란 점을 강조했다. 징계위원회내부 조사 과정을 거쳐 진상규명을 한다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평의는 학생처가 A 씨를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를 철회하지 않으면 대평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대응한 상태다.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르면 이번 달 17일 제4차 대평의 회의를 통해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학제개편(안) 심의를 거친 후 다음 날인 18일에 이사회 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앞선 상황으로 인해 제4

차 대평의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대평의 심의 없이 이사회 회의가 열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이사회 회의도 이번 달 31일 로 연기됐다. 학교 측은 글캠 학생 대표 평의원의 대표성 논란과 새로 추천된 평의원 A 씨의 징계 사안으로 대평의 회의를 정상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평의는 학생처가 평의원 A 씨를 대상으로 한 징 계위원회를 철회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대평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 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설캠 학제개편 공포를 위 해 이사회 회의 전 필수적으로 완료돼야 하는 대평의 회의의 무기한 정회를 의미한다. 대평의 회의가 무기한 정회된 상황에서 31일 전까 지 제4차 대평의 회의와 이사회 회의의 진행 여부도 미지수인 상황이 다. 대평의는 '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학내 중요 사안을 심의함으로써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 및 대변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학생자치에 있어 큰 문제를 야기하 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글캠 단과대학 학생회 소속 B 씨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자리가 공석이라는 것 자체가 아쉽다"며 "공석 기간이 길어지면 학생들에게 혼란스러운 학교로 비칠 가능성이 있고 대표성을 갖기 힘들어 학칙개정과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학생들의 목 소리가 원활히 반영되기 힘들다"고 우려를 표했다.

글캠 학생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학교 행사 진행에도 변동이 생기고 있다. 글캠 행사 관례에 따르면 1학기에 대동제가 진행되고 2학기엔 왕산체전이 진행된다. 그러나 총학이 부재한 현 상황과 예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기존의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B 씨는 "특히 행사 진행과 관련해 학생자치 단절을 여실히 느끼고 있다"며 "단과대학도 학기 초에 계획해 둔 일정과다른 수순을 밟고 있어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반면 학생자치 단절을 체감한 적이 없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또 다른 단과대학 학생회 소속 C 씨는 "개강 전 시행한 새내기 배움터와 현재 진행 중인 왕산체전을 진행하는 데 있어 교수님과 교직원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총학의 빈자리를 느끼진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 ◆진정한 학생자치의 실현을 위해선

글캠의 학생사회 발전 방안에 관한 외대학보의 질의에 B 씨는 "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할 학생 측 대표자가 필요한 중대한 회의에서 학생대표자의 부재가 체감된다"며 "현재 글캠 중운위 내부에서도 학생대표자의 공석을 메우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C 씨는 "학생사회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선 어느 주체든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화의 장 마련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일반 학우들의 의견 사항을 각과의 학생회나 단과대학의 학생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이 위원장은 임시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 소집을 공고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이번 달 24일 예정된 확운위 소집에선 제44대 총학 비대위 비대위원장단인준과 관련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학생사회의 위기는 비단 우리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세대학교 또한 이번학기에 글캠과 유사하게 학생 대표자의 궐위로 학생자치에 제동이 걸리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3월 열린 확운위 제1회 정기회에 서 비대위원장단의 선출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로 인해 비대위원장단 인준이 부결됐다. 이날 회의에선 임시 중운위가 개최돼 무기명 찬반 투표를 통해 총학 권한대행이 선출됐다. 직후 비대위설립 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새 비대위원장과 부비대위원장이 후보로 지원 했으나 회의에서 후보자에 대한 자격 문제가 제기돼 의결정족수를 충 족하지 못하며 비대위 설립에 실패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열린 회의에 선 같은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성 논의가 해소되며 비대위 설립에 성 공해 학생 대표자의 궐위 사태가 마무리됐다.

글캠 총학생회칙 제2조에 따르면 총학의 존재 목적은 총학의 자주적 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총학 구성원들의 권익과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외대인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총학의 존재 가치는 학생의 권리를 증진하고 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해 내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 있다. 글캠 학생사회가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 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양진하 기자 04jinha@hufs.ac.kr 지명원 기자 04jimw@hufs.ac.kr

기획 5

# 우리학교 AI융합대학 신설, 학내 사회에 융화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번 해부터 우리학교는 AI융합대학을 신설해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학내 구성원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학과 신설이 △ 유사·중복학과△물리적 거리에 따른 행정 및 학생자치△학습권 보장△예산 및 공간△소통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9일 우리학교에선 AI 융합대학 신설에 관한 학생 대상 간담회가 진행됐다. △AI융합대학 신설(안)△AI융합대학 신설(안)의 쟁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AI융합대학 신설(안)

우리학교는 지난해부터 글로벌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고 통번역대학 소속 학과 중 일부를 폐과하는 등 학과 구조 조정을 시행 중이다. 우리학교 기획 조정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변화는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 의 여파로 대학교 구조개혁이 필수적인 상황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기존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1항과 제18조에 따라 수도권 지역 인구 과밀 현 상을 방지하기 위해 입학 정원 증원이 제한됐다. 다만 교육부가 발표한 '2024 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에 따르면 최근 3개년 평균 결손 인원 범위 안에 서 첨단분야 학과 신설에 한해 입학정원 증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조하에 우리학교는 AI융합대학을 신설해 이번 해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기로 결정했 다.지난 1일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학칙 개정(안) 공고와 지난 4월 공 포된 우리학교 학칙 개정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양 캠퍼스(이하 양캠)에 걸 쳐 AI융합대학을 설립한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엔 Language & AI 융학학 부와 Social Science & AI 융합학부가 설립돼 각각 49명씩 총 98명의 신입생 을 모집하고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엔 AI 데이터융합학부와 Finance & AI 융합학부가 설립돼 각각 50명씩 총 1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원 화 캠퍼스가 서로 다른 캠퍼스에 걸쳐 하나의 단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우 리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이하 성균관대) 외의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흔 치 않은 시안이다. 이에 김광호 우리학교 기획조정처장(이하 김 기조처장)은 "AI 분야는 △사회과학△언어학△지역학에 특화된 설캠의 자원과 이공계열 에 특화된 글캠의 지원이 융합돼야하므로 이러한 설립 방식을 택하게 됐다" 고 밝혔다.

그러나 2024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에 따르면 첨단분야 학과 신설로 증원된 입학 정원은 다가오는 2027학년도까지 기존의 수준으로 복귀돼야 한다. 이에 우리학교는 사범대학을 개편할 당시 확보된 입학 정원 30명과 더불어 스몽골어과스사범대학 소속 학과스KFI.학과스LT학부를 제외한 전학과 별입학 정원의 49%를 각출해 2027학년도까지 입학 정원을 기존의 수준으로 되돌릴 예정이다.

#### ◆AI융합대학 신설(안)의 쟁점

AI융합대학 설립에 관해선 △유사·중복학과△물리적 거리에 따른 행정 및 학생자치△학습권 보장△예산 및 공간△소통 문제라는 대한 쟁점이 존재한다. AI융합대학에 신설되는 4개의 학과는 유사·중복학과 문제를 일으킬 수었다. 이는 신설 예정인 학과와 커리큘럼이 중복되는 기존 학과 학생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지난해 시행된 유사·중복학과(부) 폐과존치(이하 폐과존치)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간담회에선 유사·중복학과 문제로 인해 기존학과 학생이 가질 우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Language & AI 융합학부와 ELLT학과는 공통적으로 언어공학을 다루기에 ELLT학과 학생이 학습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그러나 박정식 ELLT학과 교수(이하 박교수)는 "ELLT학과의 교육과정은 언어학계열이 중심인 반면 Language & AI융합학부는 언어공학이 중심이다"며 "오히려 학과 간 학점교류 등으로 ELLT학과 학생의 학습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선 Social Science & AI 융합

학부의 교육과정이 시회과학대학 소속인 스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스정 치외교학과스행정학과의 교육과정과 중복된다는 우려 역시 제기됐지만 우 리학교 측은 기존 학과와 신설학과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진 않았다.

같은 AI융합대학소속 학생이더라도 설캠과 글캠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학사 행정과 학생 자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됐다. 이에 윤성우 교무처장(이하 윤 교무처장)은 "AI융합대학은 설캠과 글캠에 걸쳐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설립돼 학장 또한 단독으로 임명하나 학장실은 양캠에 모두 두어 학사행정에 대한 차질을 최소화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학생회와 같은 학생자치에 관한 방안은 언급되지 않아 만약 한 단괴대학이 양캠에 걸쳐 운영될 경우 하나의 학생회가 물리적 거리를 극복할 수 있을지



▲지난 9일 진행된 서울캠퍼스 AI융합대학 학생 간담회 (출처: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신설학과 설립으로 인해 AI융합전공의 교원이 AI융합대학 소속 학과의 강 의까지 담당하게 돼 교원이 더욱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기존 학과 학생 의 학습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우리학교 AI융합전공의 경우엔 신설학 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원부족으로 인해 개설되는 강의의 수가 적고 개설된 강의마저 폐강된 바 있다. 윤 교무처장에 따르면 AI융합전공은 글캠의 교수 및 강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글캠 소속 교수의 경우엔 양캠 간 물리적 거리로 인해 많은 강의를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강사의 경 우엔 개설되는 강의 수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강사에 대한 처 우가 교수와 일반 기업과 비교해 부진해 지원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심 지어 해당전공이 이중전공만을 허용하는 융합전공이기에 교수와 같은 전임 교원 임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교원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 이다. 기존 학과 학생 뿐 아니라 신설학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우려 섞인 여론도 존재한다. AI융합대학 신설의 새로운 교원임용이 충분히 이뤄 질 수 있냐는 외대학보의 질문에 우리학교 전략기획팀 교직원 A씨는 "2024 학년도 이전 학부 운영 준비를 위해 2명을 사전 임용한 후 학부의 규모 및 개 설되는 전공 교과에 따라 충분한 수의 교원을 연차적으로 임용해 신설학부 운영에 차질이 없게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예산과 캠퍼스 공간 부족 문제도 신설학과 설립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다. 특히 예산은 학과 신설에 있어 △교원△실습실△장비 확보를 위해 반드시고려돼야 하는 사항이다. 이에 학교는 정부의 지원사업과 학교 재단에 예산을 요청하는 두 가지 방안을 통해 예산확보를 계획 중이다. 하지만 우리학교에 대한 재단법인의 지원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학교 측이 학과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호성 우리학교 행정지원처장은 포화된 공간 내 강의실과 연구실 확보에 대한 의문이제기되자 "현재 강의실 중 90%만이 운용 중이기에 신설학과에 대한 추가적인 강의실 확보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연구실은 현재 비어있는 우리학교 연수원 4층과 5층에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자치공간 확보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대신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모호한 대책만을 전했다.

#### ◆나아가야 할 방향

이번 AI융합대학 간담회에선 많은 쟁점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지만 학교 측의 효용성 있는 답변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더불어 이번 AI융합대학 간담회 진행 전 이미 신설학과와 관련된 학칙 개정이 확정돼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 과정에 아쉬움이 따랐다. 이에 김태성 우리학교 부총장은 "신설학과에 대해 우려되는 사안이 있다면 의견을 수렴해서 언제든지 방문해달라"며 촉박한 일정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한편 추후 학생과의 소통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 사를 보였다. 그러나 과거 학교 측은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을 충분히 진행하지 않고 학내 사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한 전례가 있다. 실제로 이번 AI융합대학 신설을 위해 기존 학과 인원 각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여찬우 (서양어·포르투갈어 21) 씨는 "이번 입학 정원 각출 사안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사전공지된바 없었다"며 "앞으론 진실되고 충분한 소통 후에 이러한 중대사안을 진행하기를 학교 본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간담회에서 하나의 단과대학을 양캠에 설치하고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타 대학교의 시례를 묻는 질문에 김 기조처장은 성균관대를 예시로 들었다. 성균관대는 지난 2021년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을 신설하고 인문사회캠퍼스에 글로벌융합학부 그리고 자연과학캠퍼스엔 소프트웨어학과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성균관대는 기존에 존재하던 학과를 토대로 단과대학을 신설한 반면 우리학교는 단과대학 신설과 단과대학 내학부 신설을 동시에 추진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로 성균관대 시례와 우리학교 사례를 동일선상에 두고 바라보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I융합대학은 이번 해에 신설돼 다가올 2024학년도 입시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수시 접수 일정에 따라 7월부터 각 대학교의 모집요강을 살펴보게 된다. 하지만 신설 예정인 AI융합대학의 교과과정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는 Δ교원Δ기자재Δ실습실의 확보가 완료되지 않아 정식으로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학과가 설립될 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 거쳐 안정성 있는 학교가 확립된다. 근래 우리학교의 잦은 구조조정의 행보로 많은 학생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학내 사회 안정을 위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고심이 필요하다.

조수빈 기자 05subin@hufs.ac.kr



어서 와 해외는 처음이지

# 빈틈없이 행복했던 포르투갈

나는 학교의 7+1 파견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돼 지난해 9월부터 이번 해 2월까지 총 6개월 동안 포르투갈 리스 본종합대학교(Universidade de Lisboa) 어학당에서 공부했다. 2학년 때 전공어인 포르투갈어 실력 향상을 위해 어학연수를 희망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의 확산으로 불가능했고 3학년 2학기를 마친 후 휴학을 하면서 파견학생을 준비하게 됐다.

9월 초 출국이었기에 6월 말에 숙소를 마련했다. 유니플레이스(Uniplace)라는 플랫폼을 통해 2인 1실의 숙소를 구했고 학과 동기와 함께 지냈다. 숙소의 위치는 '투미아르(Lumiar)'역에서 도보 3분 거리이며 학교 근처역까지 20분 정도 소요됐다. 리스본에서 숙소를 구해야한다면 루미아르역 근처를 추천한다. △공원스대형마트스약국스음식점 등 편의시설이 많아 쾌적하고 학교와도 기깝기 때문이다. 처음 리스본(Lisbon)에 도착했을 때 생필품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서 좋았다. 이웃 주민들도 모두 친절하고 이방인인 내게 잘 대해줬다. 서툰 포르투갈어로 말을 걸어도 웃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줬고 더듬거리며 문장을 완성하면 "포르투갈어 정말 잘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환경 속에서의 외국어 학습은 내게 큰 자신감을 심어줬다.







전공어 실력 항상을 위해 택한 어학연수인 만큼 어학 당수업을 최대한 잘 따라가고자 노력했다. △문법 △문 화△작문 △회화 수업의 난이도가 높았고 교수님께 여러 번 꾸중을 듣기도 했으나 이 모든 게 다실력 향상을 위한 과정이었기에 열심히 버텼다. 가장 기억에 남는건 문화 수업이었는데 한국의 단청무늬와 포르투갈의 아줄레주(zzulejo) 비교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에 주제 선정부터 발표의 구성과 결론이 탄탄하고 발음이 좋다는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의 한국학생이 소개한 단청무늬가 인상 깊으셨는지 교수님

께선 'Muito Bonito(매우 아름답다)'라고 연신 외치셨다. 발표 전날 A4용지 4장 분량의 대본 내용을 숙지하고 스 피치 연습을 한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해외에서의 6개월은 학문적 소양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걸 끊임없이 경험하게 해준 선물과도 같은 기간이었다. 리스본 이외에도 포르투(Porto)와 신트라(Sintra) 등 다양한 도시들과 스독일스영국스이탈리아스프랑스 등의 가까운 유럽 국가들을 여행하며 잊지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뭐든 빨리 진행되는 걸 선호하는 우리나라와 정반대인 유럽에서 생활하면서 여유를

즐기게 됐고 그 속에서 소소한 행복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느리지만 불평 하나 하지 않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마음이 그립기도 하다.

어학연수는 내삶을 한층 더 빛나게 해줬다. 힘들 때마다 다다시 올까 싶은 소중한 순간들을 종종 꺼내 추억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원동력을 얻어야겠다. 누군가 어학연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하라고 말하고 싶다. 빈틈없이 행복할 것이라 확신한다.

조유진(서양어 · 포르투갈어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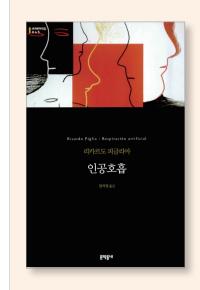


읽어서 세계속으로

아르헨티나

<인공호흡>

-고통으로부터 -



이 책의 작가인 '리카르도 피 글리아(Ricardo Pigia)(이하 피 글리아)'는 1941년 아르헨티나 의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10 대 시절부터 썼던 일기를 시작 으로 문학에 발을 들였고 1967 년 쿠바의 문화단체인 카사 데 라스 아메리카스가 주최한 콩 쿠르에 입상하며 작가로 등단 한다. 이후 미국의 여러 스릴러 소설을 편집한 '세리에 네그라 (SERIE NEGRA)'란 시리즈물을 출판하며 당대 미국의 유명 작 기를 아르헨티나로 유입시키

는 역할을 해낸다. 피글리아는 1980년이 되던 해 장편소설 '인공호흡'을 출 간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이는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문학 작품으로 평가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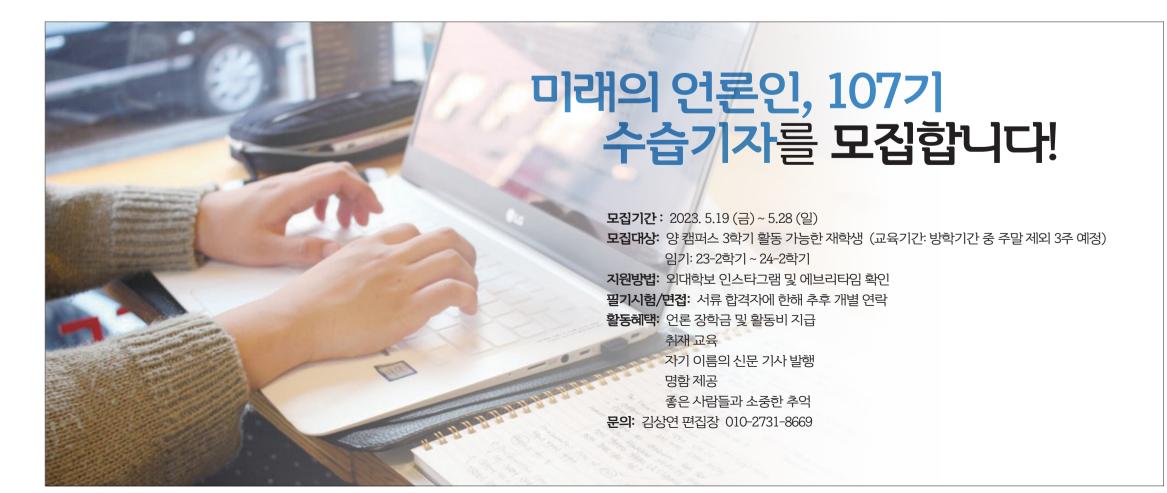
그의 대표작 '인공호흡'은 작가나 지식인에 대한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정권의 탄압이 절정에 달했던 때 세상에 나왔다. 그는 독재에 의한 탄압에 대해 소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소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소카프 카(Kafka) 등 철학자들의 생각을 따라 문제의 근원지를 찾는다. 이 책은 군부 독재정권에 대한 공포가 알레고리\*적으로 표현된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 장르적으론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역사소설과 정치소설의 경계를 넘나들고 내용적으론 다양한 소담론소여담소에피소 드를 총망라한다. 이렇듯 끊임없이 이야기를 쏟아내는 이유는 후대에 들어 출간 시 검열을 피하고자 함으로 추측된다. 당대의 작가들은 기존 문학의 언어와 형식을 파편화하고 여러 장르를 혼합함으로써 군부 독재에 저항하고자했다.

책은 한 청년 작가가 군부 독재정권 시대에 살았던 외삼촌의 삶을 추적 해가는 여정과 그 주변인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1부와 이전에 언급한 실제 인물들이 등장해 문학담론을 펼치는 2부로 구성된다. 주인공인 에밀리오 렌시(이하 렌시)는 사람들을 매개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아르헨티나를 여행하고 대화나 편지를 통해 과거의 인물과 소통한다. 이러한 과정을 따라 현대의 아르헨티나가 겪고 있는 고통의 기원을 모색하는데 이때 렌시는 작가인 피글리아의 페르소나로서 기능한다. 해당 작품 이외에도 피글리아는 자신의 페르소나를 관찰자로 설정한 다수의 작품을 서술했는데 이는 사건을 뒤쫓는 탐정소설로서의 면모를 갖춰 독자에게 긴장감과 흥미를 유발한다. 그는 폭압적인 독재정권 아래 숨죽일 수밖에 없던 진실을 문학을 통해 여러 사람의 입을 빌려 조명함으로써 '인공호흡'하고자했다.

독재를 향한 투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5월의 광주엔 봄이 찾아왔고 태국 총선에선 민주 진영이 군부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독재의 시간은 지울 수 없는 싱처를 남기고 말았다. 아직도 많은 사람은 과거의 시간에 묶인 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에 다가서서 고통을 해소하지 않으면 상처는 끊임없이 재생될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고통받은 이들과 그들의 고통에 대해 멈추지 않고 이야기해야 한다. 싱처를 제대로 마주하고 충분히 슬퍼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도 같다. 치유를 위한 오늘의 진솔하고 용기 있는 발화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알레고리 : 어떤 한 주제를 말하기 위해 다른 주제를 사용해 그 유사성을 적절히 암시하면서 주제를 나타내는 수사법으로 △배경△인물△행위 등이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를 모두 가지도록 고안된 기법

한 비 기자 04hanbi@hufs.ac.kr



# 미흡한 교내 장학금 제도,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개선이 필요한 때

장학금은 학생이 좋은 여건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자 보조금이다. 우리학교엔 다른 대학교와 같이 교내 장학금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학교 의 교내 장학금 지급 금액이 다른 사립대학교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 적되고 있다. 또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 그 기준이 다양하지 않고 성적·경제 사정에 치중됐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에 △우리학교 장학금 제도 현황△우리학교 장학금 제도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우리학교 장학금 제도

우리학교 교내 장학금은 등록학기 8학기 이하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교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과 등록금 범위 초과 장학금으로 구분된다. 등록금 내 장학금은  $\triangle$ 가계곤란 장학금 $\triangle$ 교직원자녀 장학금 $\triangle$ 기타지원 장학금 $\triangle$ 성적우수 장학금 $\triangle$ 유공자·새터민 보훈 장학금 $\triangle$ 외국인 장학금 $\triangle$ 학생활동 장학금 $\triangle$ 해외교류생 장학금 $\triangle$ 로 분류된다.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지원 장학금은  $\triangle$ 국제화 장학금 $\triangle$ 교내근로 장학금 $\triangle$ 교육 활동 지원 장학금 $\triangle$ 인턴십 장학금으로 구분된다.

교내 장학금 예산은 매해 장학금지급규정에 의거해 결정된다. 학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 예산으로 책정해야 한다. 또한 장학금 총액의 30% 이상은 가계곤란 장학금으로 편성한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는 장학금 편성을 위해 지난 2021년 2학기부터 성적장학금 개편 과정을 거쳤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소성적장학금 종류 기존 3개(총장·학장·학과장)에서 2개(총장·학장)로 조정소학과별 성적(학장) 장학금 선발 인원 증가소학과(부)장 특별장학금 제도 신설소소득 수준과 학과 기여도 등 다양한 선발 기준을 통한 장학금 지급이 있다. 학과(부)장 특별장학금의 경우 개편 전엔 글로벌캠퍼스 (이하 글캠)에만 존재했으나 양 캠퍼스 장학금제도의 유사성 도모를 위해 개편 중 설캠에 신설됐다. 이는 기존 공로장학금과 제도적 차이는 없으며 명칭만 변경된 것이다.

#### ◆우리학교 장학금 제도의 문제

대학알리미가 제공한 '대학별 장학금 수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학 교는 약 160억 원을 교내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약 173억원을 지급한 지난 2021년도에 비해 13억 가량의 금액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대학 알리미에 명시된 다른 서울권 주요 대학교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물론 소서강대학교소서울대학교소서울시립대학교 등 우리학교보다 교내 장학금 지급 금액이 적은 대학교도 존재한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는 각각 국립과 시립대학교로 해당 대학교의 등록금은 우리학교의 절반 수준인 것을 고려했을 때 동일 선상에서의 비교는 적절치 않다. 대학알리미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학교 1인당 교내장학금 수혜금액은 2,640,784원으로 중앙대학교(3,728,192원)와 경희대학교 (3,026,693원)에 비해 낮았다. 또한 해당 자료를 통해 우리학교의 소교내 장학금의 총 액수소교내 성적장학금의 1인당 수혜 평균 액수소교내장학

금 1인당 수혜 평균 액수 모두 다른 서울권 주요 대학교에 비해 낮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장학금 예산이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낮다는 점은 우리학교 장학팀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학교 설캠 장학팀 관계자 A 씨는 "장학금 비율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은 전체 교내 장학금 예산 부족과 장학 기부금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교에 비해 기부금이 적어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우리학교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 그 기준이 다양하지 않고 성적·경제 사정에 치중됐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문제다. 우리학교 교내 장학금은 언론과 학생자치 등의 학생활동 장학금 외엔 성적우수 장학금과 가계곤란 장학금만이 존재한다. 지난 2020년에 HUFS Dream 장학금이 신설됐지만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가정경제가 어려워진 학우들의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된 것이다.

유형	장학금명	장학 내용
성적우수	우수입학	입학처에서 선발하는 우수신입생에게 지급
	외국인 우수 입학	국제학생지원팀에서 선발하는 순수외국인 우수신입생에
		게 지급
		-개편 전: 학과별로 학점이 높은 학생 순으로 △등록금
성적	24 74	전액△등록금 40%△등록금 30%지급
	경식	-개편 후: 총장·학장 장학금과 학과에 공로한 학생에게
		학과(부)장특별장학금 지급
가계곤란	면학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장애학생인 경우 지급
	공로	해당 학과에서 공로를 인정하여 학과 추천으로 지급
	가 하다 다 (님 기)	가계곤란자로서 교내 행정부서 등에 배치되어 봉사하는
자치활동(봉사)	사기철상(공사)	학생에게 지급
학생활동	자치활동(학생자치)	학생회 등 교내 학생 자치기구에서 활동하는 학생에게
		지급
	자치활동(언론)	교내언론기구에서 활동하는 학생에게 지급

▲교내 장학금 지급 규정

####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학교 장학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인 예산 문제는 장학금 수혜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우리학교 예산 부족의 핵심적인 원인으론 △등록금 동결△비교적 적은 동문기부금△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린 학교 수익 사업의 부진 등이 꼽힌다. 이에 이성 아(중국·중언문 22) 씨는 "우리학교 재정 상황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인지했지만 크게 체감하진 못했는데 최근 장학금 수혜와 같은 문제를 통해 이를 자주 느끼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A 씨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일단락됨에 따라 임대 사업 등 다양한 경로로 더 많은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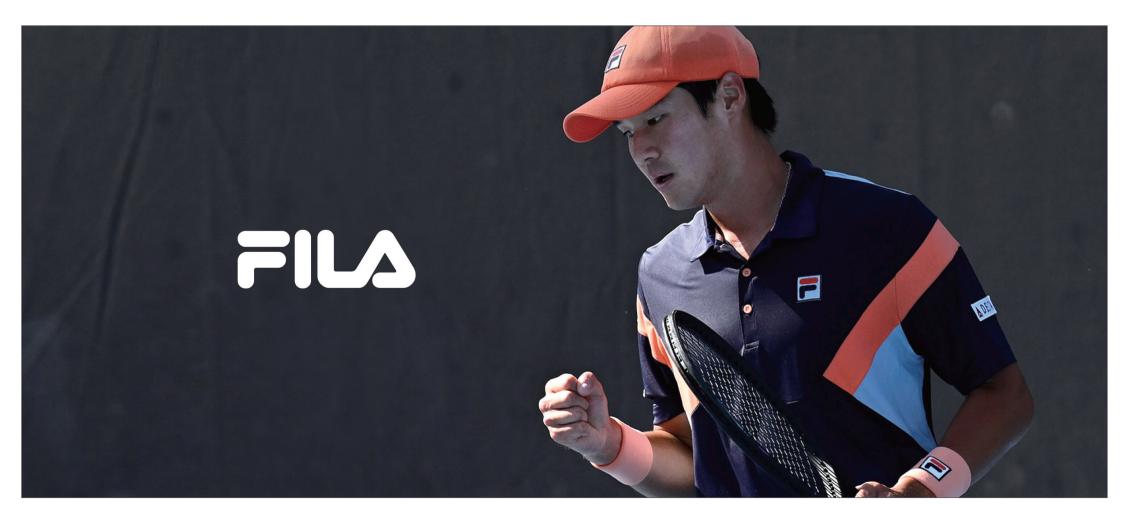
산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며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추진과 송도캠퍼스 활성화 등의 외부 사업이 수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장학 금 예산 편성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고 전했 다.

어문 중점인 우리학교만의 특성을 살려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박정윤(서양어·독일어 22) 씨는 "다양한 어문 계열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우리학교만의 특색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공생에게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이 지원돼 학생들에게 발전의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대학교의 장학금 지원 제도가 주목받는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이화미래설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당 장학금은 진로 계획이 명확한 재학생에게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는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1인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그러나 4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에 200만 원을 우선 지급한 후 두 번째 학기에 미래설계 계획실행 정도를 평가한 후 나머지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학생들에게 각자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의의가 있다.

고려대학교(이하 고려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얻는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성적장학금 제도를 폐지했다. 학업 성적 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장학금이 진정으로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히 분배한다는 것이다. 폐지 당시 학생들의 반발도 존재 했으나 학과(부) 차원에서 성적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공 로장학금을 신설해 그 공백을 채우고 있다. 또한 장학금 지급 목적에 맞 게 필요한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장학금'이 존재한다. 예컨대 문과 학생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이공계 공부를 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 당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는 이중적인 효과도 불 러일으킬 수 있다. 고려대의 행보는 장학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지급 목 적을 밝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또한 단순히 성적 장학금으로 프로그램 장학금을 운용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학교 측에서 예산안 자체를 개편해 학생들 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기에 현재까지도 교내 장학금 수혜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적절하고 다양한 장학금은 공부 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 유인이자 수혜다. 우리학교의 교내 장학금 제도의 개선으로 학습 분위기를 고취시켜야 할 때다.

고서연 기자 06syko@hufs.ac.kr



사회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외대학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엔데믹 선언,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지난 11일 우리나라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위기 경보를 '심각'에 회복이 현실화된 가운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엔데믹 선 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방역 완화 조치를 오는 6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 4개월 만에 엔데믹\*을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일상으로의

언△엔데믹 선언 이후의 변화와 우려 섞인 목소리△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지난 3년 동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 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급격히 전파됐다. 통계 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3,148만 6,904명으로 우리나 라 인구 대비 확진 비율이 약 61%에 달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 에 해당하는 사람이 코로나19에 확진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 만 코로나19는 점차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코로 나19에 내렸던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가 약 3년 4개월 만에 해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5일 WHO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인 국제공중보건비상사 태(이하 PHEIC) 해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 개최된 '제15차 COVID-19 긴급위원회(이하 긴급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지난 2020년 1월 선포 이후 약 3년 4개월간 이어졌던 PHEIC가 공식 해제된 것이다. 긴 급위원회는 △낮은 변이 위험도△의료체계 회복 탄력성 증가△확진자 발 생 감소 등을 토대로 PHEIC의 해제를 테워드로스 거브러여수스(Tedros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이하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에게 권고했다. 테 워드로스 사무총장은 해제 의견을 받아들이며 코로나19는 PHEIC를 구성하 지 않는 보건 문제라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우리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도 WHO의 PHEIC 해제 발표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완화하며 코로나19의 엔데 믹을 선언했다. 이로써 정부는 다음 달인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 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에 집중할 예정이다. 중 대본은 "최근 4주 동안의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7명이고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다"며 "현 대응체계에서도 코로나19의 안정적 관 리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엔데믹 선언 이후의 변화와 우려 섞인 목소리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다양한 방역 조치 가 완화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는 의무가 아닌 권 고로 전환되며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도 마 스크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국내 입국자가 입 국 후 3일 이내에 받도록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종료된다. 이번 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 일상에서 체김하는 규제는 대부분 시리지는 것이다. 한편 △선별진료소△원스톱 진료기관 1만 697곳△재택치료자 의료상담△ 행정안내센터는 계속해서 운영된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예방접종△치료 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위기 위험신호를 조기에 포착함으로써 선제

제와 치료비△확진자 생활비 등 국민지원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정부가 일상으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했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엔데믹 선 언을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변 이 바이러스의 출현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염성이 높거 나 백신에 대한 잠재적 내성을 가진 변종의 확산은 통제하기 어려우며 향후 재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엔데믹이 선언된 직후인 6월 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한다. 엄중식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이하 엄 교수)는 "지난 7차 유행의 정점 시기를 고려하면 6월 에 예방효과가 떨어지면서 소규모 유행이 다시 올 것이다"고 예측했다. 방역 당국은 국내에서 우세종이 된 XBB 계열 변이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6월 초에 적게는 2만 6천 명에서 많게는 4만 명 수준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할 것 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재 1만 5천 명에서 2만 명 정도 발생하는 일일 확진자 수와 비교해 2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엄 교수는 "검시를 받지 않는 숨은 감 염자 수를 고려하면 예상치의 2배 정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감염병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신종감염병 발생 주기는 점점 짧 아지고 있다. △2003년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2009년 신종플 루Δ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는 이들 사이에 각각 6년이란 주기가 있었지만 코로나19는 메르스 이후 4년 만에 발생했다. 김동현 한림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하 김 교수)는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와 같은 팬 데믹(Pandemic)을 초래할 감염병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며 "향후 3년 안에 다시 닥쳐올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돼 코로나19에 감염 됐는데도 일터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방역 조치가 완화되 면서 정부가 지원해 온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나 중소기업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비 등은 당분간만 유지된 뒤 중단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 확진 후 경제적 이유 등으로 격리 없이 곧바로 일터로 복귀함에 따라 감 염병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실제로 김 교수는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감염병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 ◆나아가야 할 방향

일각에선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재유행과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대 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엄 교수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나 신종 감염병 의 가능성은 늘 염두에 둬야 한다"며 "범정부적으로 예산과 인력 등도 빠르 게 확보해 대응체계를 속도감 있게 갖춰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감염병 종

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신종 감염병 유행 시 200일 이 내에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1주일 이내에 동원할 수 있는 중환자 치료 가능 상시병상 3,500개를 확보해 대규모 유행에 안정적으 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해외 유행 감염병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수집 경로를 활용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호흡기 감염 병 중심으로 △변이감시△병원체감시△임상감시 등을 대폭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하 지 질병청장)은 "미래의 팬데믹은 우 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과 방식으로 찾아올 수 있기에 이를 대비한 방역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금보다 감염병 대응에 더 준비된 사회 시스템 을 만들기 위해 전 사회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사라진 코로나19 격리 의무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우려 도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지난 2020년 정은경 전 질병관리본 부장은 "아파도 나온다는 문화가 아프면 쉰다는 문화로 바뀔 수 있도록 근 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프면 쉬는 문화의 정착을 위해 기업 이나 학교 등 기관별 자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코로나19 피해 완화와 조기 회복을 위한 두터운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지난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지원책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운영 중이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그러나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지 3년이나 흘렀지만 아직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 질병청장은 "보건복지 부에선 상병수당 관련 시범시업을 제도화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제도의 정식 도입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전했다.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변이 바이러스△새로운 감염병△엔데믹 선언 이후 사회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다.

\*엔데믹(Endemic): 일반 감기나 계절 독감처럼 변이가 주기적으로 나타나 고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이 낮은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황동현 기자 06donghyun@hufs.ac.kr

# www.시사 한 중 토릭.com

#### 정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해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로 인해 탈당한 김남국 무소 속 의원(이하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과거 개최된 쇄신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원 간 견해 차이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당 확대간부회의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를 지시했다. 이에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일반 상식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행위들이 이뤄졌다"며 국회 차원에서의 엄중한 징계를 거듭 촉구했다.

#### 사회 혼자 사는 여성 집 무단 침입하려 한 남성 용의자 특정돼

지난 16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무단 침입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A 씨는 "누군가 현관문 밖에서 문틈으로 철사를 넣고 손잡이에 걸더니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을 올려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해당 영 상엔 철사를 문고리에 걸어 잡이당기는 남성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 석해 부동산업체 직원인 40대 남성 B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또한 범행 목적이 없더라도 B 씨의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후 조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지속되는 한국전력공사 적자,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해

지난 15일 정부는 2023년도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인상안에 따르면 1kWh(킬로와트시)당 전기요금이 8원 오르며 약 5.3% 상승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7천 원 인 상됐으며 이번 해 1월 이후로 4개월 만의 인상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이 번 해 초까지 지속적으로 요금을 조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 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25조 7,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승일 전 한전 사장이 자구안을 발표했다. 정부 측에서도 요금 인상에 대해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국제 이탈리아 북부에서 홍수 발생, 8명 숨져

가뭄에 시달리던 이탈리아 북부에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홍수가 발생했다. 21개의 강에 서 제방이 무너지고 250건 기량의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37개의 마을이 침수되고 최소 8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아직 구조 작업이 진행중에 있어서 피해 규모를 정 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나치니(bonachini) 주지사는 △라벤나(labenna)△볼로냐 (bollonya)스파엔차(paenchya) 등에서 수천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고 전했다. 이에 조르 자 멜로니(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는 "정부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긴급 지원을 승 인할 준비가 됐다"며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외대학보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사회 9

# 확산되는 '노 존(No Zone)', 차별과 권리 사이의 위태로운 줄타기

에 있어 특정한 집단을 배제하는 '노 존(No Zone)'이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 난 8일엔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 방침을 내건 한 카페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면

지난 2014년 '노키즈존(No Kids Zone)'을 표방하는 가게나 업소가 출현한 이후 서비스 이용 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노 존' 표방은 업주의 정당한 영업권 행사라는 견해와 치별과 혐 오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 '노 존'의 등장 배경△ '노 존'을 둘러싼 쟁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알아보자.

#### ◆'노 존'의 등장 배경

지난 8일 60세 이상 연령의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시니어존' 카페가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이에 해당 카페의 노시 니어존 지정에 관한 비판론과 옹호론 사이의 논쟁이 점화돼 현재까지 이어지 고 있다. 연령에 근거해 특정 집단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부당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 비판론의 골자다. 한편 자신이 소유한 가게에서 업 주에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은 영업상의 자유이고 재산권 의 행사일 뿐이라는 옹호론도 존재한다.

노시니어존을 비롯한 '노 존' 방침은 '노키즈존'에서 시작됐다. 노키즈존은 영 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지칭하는 용어다. 경기도공익활동지 원센터에 따르면 노키즈존이라는 용어는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통용됐 다. 지난 2016년 노키즈존에 대한 불매운동과 함께 여론이 악회되면서 노키즈 존은 다시 사회적 화두가 됐다. 노키즈존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영업 방침 은 아니다. 지난 12일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선 어린이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 는 미국과 아일랜드의 가게가 소개됐다. 또한 지난 2018년 미국 노스캐롤라이 나주(North Carolina)에선 5세 이하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한 레스토랑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노키즈존 매장 수는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이번 해 제주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술집이나 유흥업소 등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를 제외한 전국의 노키즈존은 542개로 조사됐다. 노키즈존은 지난 2011년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의 한 식당에서 10세의 아동이 종업원과 부딪히며 화 상을 입은 시건을 계기로 확신됐다. 당시 부산지방법원은 이 시건에 대해 식당 과 종업원의 과실을 80%로 산정하고 4천만 원 기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 다. 이에 부모의 방관과 관리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업주에게 과도하게 전가 하는 처시란 비판적 여론이 대두되며 노키즈존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가 이

노키즈존에 대한 여론은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 다. 지난 2월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73%로 집계된 반면 허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 다. 이는 한국리서치가 동일한 질문으로 진행한 지난 2021년 설문조사와도 유 시한 결과다. 노키즈존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경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이다. 노키즈존에 찬성한 이유로는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72%)'가 가장 높았 고 '영업의 자유(71%)'와 '매장 분위기 개선(70%)'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노키즈존에 이어 노키즈존의 다양한 변형태들인 '노 존'도 생겨나고 있 다. 실제로 부산의 한 카페에선 청소년들이 흡연행위와 욕설 등 불량행위로 영 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노유스존(No Youth Zone)'을 내걸었다. 또한 부산대학교(이하 부산대) 인근 한 술집에선 일 부 교수들이 시업장에서 교수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남용해 불쾌감을 조성한다 며 '노교수존' 안내문을 부착했다가 부산대 교수협의회의 항의를 받고 안내문 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 2021년엔 서울특별시의 한 야영장에서 과음과 고성방 가 문제를 호소하며 40대 이상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중년존'을 도입했다. 이처 럼 '노 존'에서 배제되는 집단의 범위는 아동을 넘어 다른 연령대나 직업으로까 지확장되고 있다.

#### ◆'노 존'을 둘러싼 쟁점

'노존'과 같은 영업 방식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면 서 이에 관한 여러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노 존'이 대상 집단의 보호에 기여한 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1년 부산시의 한 식당에서 일어난 어린이 화 상 시고 등이 이러한 견해의 근거 중 하나다.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현 저히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업장의 경우 노키즈존을 설정함으 로써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대법원은 목욕탕 업 주가 예상되는 위험성으로 인해 전맹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거부한 것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했다.

한편 이는 키페나 패스트푸드점 등 아동에 대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 설도 노키즈존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보호 자의 충분한 관리와 감독만으로 위험성이 일정 수준 통제될 수 있으니 아동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보단 부모의 감독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 여성조선의 보도에선 노키즈존의 대안으로 이동의 출입은 허용하되 안전사고나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전적으로 보 호자에게 귀속하는 '케어키즈존(Care Kids Zone)' 카페가 소개됐다.

'노존'설정이 영업상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이 를 긍정하는 진영에선 직업행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를 근거로 영업 방침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업주의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주 장한다. 택시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영역에선 예외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요구 되지만 키페나 음식점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되고 공익성이 부재한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노 존'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현재 '노 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제는 없지만 부당 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상대방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 23조 제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노 존'이 부당한 차별로서 혐오를 조장하고 촉진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해 이대학보에 게재된 칼럼에서 "아동의 출입을 거부하는 노키즈존의 증가 현상은 사회에 만연한 아동에 대한 혐오에 기인한다"고 풀이했다. 이는 다시 '맘충'과 같은 다른 혐오표현과 결부 되면서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택광 경 희대학교 교수는 "노키즈존의 기저에는 곧 노동에 대한 혐오와 육아노동에 대 한 혐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노키즈존뿐 아니라 다른 '노 존'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이야기다. 실제로 지난 2021년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조사에서 60% 의 응답자가 '노중년존'의 사례는 나이를 이유로 한 혐오로 생각한다고 응답했 다. 또한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유흥업소나 주점 등과 달리 환경적 특성이나 아 동의 발달 특성에 비춰볼 때 아동을 그로부터 일률적으로 배제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노키즈존은 과도한 조처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2016년 경기 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키즈존은 과잉조치에 해당한다(46.6%)'는 견해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한편 '노 존'은 다른 소비자들에게 불쾌감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전에 차단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정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노키즈존의 경우 앞선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1%가 공공장소에서 소란스러운 아이들로 인해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불편을 경험한 장소로 는 '카페나 음식점(722%)'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나아가야 할 방향

'노 존'은 여러 측면에서 권리가 상충하는 사안이므로 이해관계의 조율과 협치 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의 일부 국기들은 치별금지와 관련된 법제를 입 법해 '노 존'을 규제하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 온타리오주(Ontario)에선 △주점 △카지노△클럽을 제외한 시설에서 아동의 건강 보호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아 동의 접근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권 강령을 시행하고 있다. 노키즈존 뿐 아니라 △성별△인종△종교 등의 특성을 근거로 한 모든 출입 거부행위가 위법한 차별로 간주된다. 지난 2016년부터 스페인은 지역 업소나 공공 관광시 설에서 특정한 집단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관련 법규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장소 예절이 확충되고 정립되는 것도 중요하다. 우혜영 포틀랜드주립대 학(Portland State University)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노키즈존은 식당에 다 쓴 기저귀를 버리고 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논란이 돼 등장한 것이다"고 전 했다. 공공장소 예절을 준수하지 않는 일부 고객들의 행위에서 노키즈존과 같 은 현상이 비롯됐다는 것이다.

한편 연령 등 집단의 속성에 근거한 배제행위는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 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 교 교수는 "연령과 같은 속성을 사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지 적했다. 아동과 같은 집단에 대한 출입 금지가 아닌 '소란 금지' 등 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3세 미만의 아동의 출입을 제한한 제주도의 한 식당에 대해 모든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전 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일부의 시례를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 당한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선 제주 도 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땐 계도조치를 시행하는 조례 안이 입법 예고됐다. 또한 지난 2019년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아동의 출입을 완전히 금지하기보단 아동의 소란행위 등에 대해 우선 경고하고 주의를 줄 수 있는 공간인 '경고 가능존'이 대안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노 존'보단 대상의 특수한 성격을 반영해 대상과의 유기적 공존이 가능 한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지난해 경향신문 기사에선 정원과 놀 이시설 등 자연친화적 공간을 구축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색연필 등 놀이 도구 를 제공하는 북한산에 소재한 '예스키즈존' 카페가 소개됐다. △놀이공간△유 아 전용 상품·서비스 제공△수유실 등을 통해 아동과 성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구축하려는 시도다. 이택광 경희대학교 교수는 "어른 문화와 아이 문화가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이러한 예스키즈존과 같은 시도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부산시 금정구는 아동을 동반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의 시를 밝힌 관내 10개의 음식점을 '금정 예스키즈존'으로 선정하고 유아용 수저 나식기 등을 지원했다.

김정수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노키즈존은 영업주가 가진 영업의 자유와 아동과 부모의 행복추구권이 충돌해 나타난 현상이다"고 진단했다. 차별과 권 리 사이에서 업주와 고객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송성윤 기자 06sysong@hufs.ac.kr





# 할수있는건 잘할거고 못하는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평균 이상 최고 미만'이다. 어떤 걸 하든 보통 사람들 보단 잘하지만 한 가지를 특출나게 잘하진 않는다. 그래서인지 항상 평균만 하자 는 마음가짐을 갖고 산다. 외대학보 수습기자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도 기뻤지만 크게 걱정되진 않았다. 적어도 못해서 민폐를 끼칠 일은 없을거라고 스스로 자만 했다. 그러나 처음 기획 기사를 작성하며 '못하는 것'에 대한 벽에 부딪혔다. 당시 우리학교 연구소 문제에 대한 기사를 담당했고 글을 쓰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 다. 내가 쓴 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 이었다. 국부장단의 피드백을 토대로 기사를 수정했고 나중엔 처음 썼던 기사의 내용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기사가 바뀌었다. 그렇게 기사를 완성하자 걱 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다음 기사는 잘 쓸 수 있을까?'란 막연한 불안감에 막막해 지기도 했다. 신문이 발행된 뒤 이번 기사를 인상깊게 봤다며 주변에서 칭찬해줬 지만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였던지라 단지 날 위로해주려는 말이라고 생각해 긍정 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 기사를 써야했고 어떻게든 제안서를 제출해야 했다. 내 제안서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더 이상 우울감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학보는 그간 내 삶에 있어서 몇 없는 장벽이었지만 동시에 뛰어넘고 싶은 존재기 도 했다. 제안서와 기사를 쓰며 자존감이 낮아지려 하면 스스로를 독려하려고 노 력했다. 예전부터 갖고 있던 마음가짐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평균만 하자'에서 '평균 이상을 하자'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학보 활동을 이어나가려면 어중간한 마 음으론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배로 노력하고 많은 인 력이 투입돼야 신문 한 부를 발행할 수 있다. 이곳에선 애매한 정신으로 있는 것 자 체가 폐가 되는 일이었다. 학보 활동을 하며 벽에 부딪혔고 체력의 한계를 느꼈지 만 다같이 글을 쓰고 회의를 하며 결과물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은 그 모든 고통을 상쇄시킬만큼 즐거웠다. 지금까지 총 다섯 번의 마감을 하면서 힘든 적도 많았으 나 학보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다. 내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 를 도와줄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확신 덕분이다. 내가 외대학보에서 받은 도움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싶다. 모르는 게 있다면 물어보는 걸 꺼리지 않을 거고 도움을 요청하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도울 것이다. 누군가 나처럼 한계에 부딪혀 절망한다면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해줄거다. 모두가 노력해서 만 들어내는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나설 것이다. 아직 1년도 더 남은 학보 기간 동안 함께 협업하며 의미있는 활

동을 하고싶다. "할 수 있는 건 잘할거고 못하는 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학보 활동을 하는 동안 잊지 않고 계속해서 되새길 말이다.



임채린 기자

####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외대학보



## [소설 '아가미'를 읽고] 감정의 양가성에 대하여

구병모 작가의 소설 '아가미'의 주인공은 '곤' 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아이다. 빈곤을 견디지 못한 그의 아버지는 당시 어렸던 곤과 함께 호수에 몸을 던진다. 아버지는 죽고 말았지만 곤은 생을 향한 본능적인 의지로 가까스로 생존해 아가미와 반짝이는 비늘을 얻게 된다. 호수에 홀로 남은 곤을 찾아낸 사람은 호수 주변의 허름한 집 에서 살고 있던 '강하'와 그의 할아버지였다. 강하와 할아버지는 곤 의 아가미와 비늘을 보고도 그를 내치지 않고 함께 살아간다. 이 소 설은 인생의 한 지점에서 만난 이들이 잠시 함께하고 또 다른 인생 의 길을 찾아 각자의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는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나 아름다운 형태를 띠는 것은 아 니다. △강하△곤△할아버지△'해류'는 서로 사랑하기에 함께 살아 가고 관계가 존속되지만 이야기의 결말에 다다를 때까지 행복이라 는 단어를 단 한번도 붙이기 어려울 만큼 우울하다. 강하는 소중한 것을 혼자만 알고 싶어하며 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숨긴다. 이는 강하가 보통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지 못해 타인을 아끼고 사랑하 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래 양가감정은 논리적으 로 설명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엄마를 하루에 몇 번씩 아무 도 모르는 데로 갖다버리고 싶었는데요. 게다가 곤, 사람은 자신에 게 결여된 부분을 남이 갖고 있으면 그걸 꼭 빼앗고 싶을 만큼 부럽 거나 절실하지 않아도 공연히 질투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자신에게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리어 좋아하기도 하는 모순을 보여요 맘에 들기도 하지만 울컥 화도 나는 거죠." 강하는 이처럼 곤에 대한 자신의 사랑 방식이 모순됐음을 자각하는 동시에 사랑 에 대한 양가감정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한다.

강하가 올바른 방식으로 곤을 아끼고 사랑했다면 어쩌면 소설의 후반부에 곤이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곤은 계속해서 이들과 함께 살아갔을 것이고 홍수가 났을 때 강하가 할아버지 곁 을 떠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소중한 것은 숨기지 말고 적절한 방식 으로 아껴줘야 한다는 것을 강하는 몰랐다. 사랑 뿐만 아니라 살면 서 느끼는 모든 감정은 양가적이다. 우린 누군가에게 애정과 증오 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기도 하고 그립지만 돌아가기 싫은 장소와 시간을 가슴 한 켠에 품은채로 살아가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는 삶 을 살아가며 느끼는 감정을 이분법적으로 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좋으면 좋다고, 이쉬우면 이쉽다고, 그리우면 그립다고 말할 수 있 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야 어떤 관계든 매번 찾아오는 이별의 순 간에 아쉬움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

고서연 기자 06syko@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 [영화 '더 웨일'을 보고] 무엇이 인간을 구원하는가

영화 '더 웨일'은 온라인 작문 수업의 강사이자 272kg의 초고도비만 인 주인공 '찰리'가 겪는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다룬다. 아내와 8살의 딸이 있었던 주인공은 동성애자로서의 성적 지향을 뒤늦게 자각하고 가족을 내팽개친 채 남자친구와 도피한다. 그러나 찰리의 남자친구 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주인공은 딸을 버렸다는 죄책감과 자신의 연인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탄 속에서 폭 식증을 앓게 된다. 지속되는 폭식으로 그의 체구는 점차 흉측해지고 건강도 빠르게 악화되지만 그는 폭식을 멈추지 않는다. 결국 울혈성 심부전으로 죽음이 임박한 찰리는 딸 '엘리'와 대면한다. 자신과 세상 을 경멸하게 된 딸에게 주인공은 그녀의 재능과 가치를 일깨워 주려 부단히 노력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딸은 주인공 앞에서 8학년 시절 작성한 자신의 '모비 딕' 에세이를 읽는다. 영화는 자신이 읽었던 에세 이 중 가장 정직한 에세이였다는 대사와 함께 주인공이 사망하는 장 면으로 막을 내린다.

우리는 가끔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 그동안 저질렀던 과오와 후회 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른다.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의 경우가 그렇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폭식증으로 각종 질환을 앓고 있 음에도 음식에 대한 탐닉을 결코 중단하지 않는다. 병원에 기라는 주 변 인물의 권유에도 한사코 치료를 거부한다. 이는 주인공이 치료비 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모아놓은 돈을 딸에게 남겨주기 위해서였다. 주인공의 폭식은 자신에 대한 일종의 징벌적 행위였다. 그리고 그 자 기파괴와 자학을 통해 구원의 서사가 완성된다. 그 기저엔 누군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죄책감△회한이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다.

영화에서 '정직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된다는 점도 인상 깊다. 결국 구원의 가능성은 자신의 결함과 솔직하게 대면하는 것에서 출현한 다. 솔직하게 대면하는 행위는 자신과 세계에 대한 환상의 폐기를 수 반할 수밖에 없다. 비참을 비참으로 오롯이 받아들이는 일이 선행되 지 않으면 그 비참을 극복하는 일 역시 가능하지 않다. 주인공은 자신 의 비루함을 인정한다. 비만으로 표상되는 자신의 죄악도 부인하지 않는다. 자신이 구제 불능의 상태임을 시인하면서 우울의 심연 속에 머문다. 그러나 동시에 끊임없이 참회하길 멈추지 않는다. 현실에 대 한 절망적인 인식 저편에는 역설적으로 어떤 종류의 기이한 낙관이 있다. 그 무엇도 달라지지 않으리라 생각하므로 절박하지 않다. 사죄 를 받아달라는 애원도 없다. 주인공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고행을 완 수한다. 이러한 진실성의 태도에서 우리는 때아닌 구원의 가능성을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이 있다. 결국 인간으로부터 받은 상처 는 인간으로부터 치유될 수밖에 없다. 작중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파 멸해 가는 주인공을 외면하지 못한다. 오래된 증오와 상흔 속에서도 온기와 연민은 여전히 남아서 숨 쉬고 있다. 불완전한 인간은 살아있 는 한 어떤 형태로든 죄를 짓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 그 자체 보다도 죄에 뒤따르는 속죄의 과정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상 처는 변화한다. 그리고 그 상처를 둘러싼 인간 역시 변화할 수 있다. 이 변화의 가능성이야말로 인간에게 남은 단 하나의 희망일지 모른 다.

송성윤 기자 06sysong@hufs.ac.kr

나리나(국제지역 · 프랑스 20)

1079호 학보를 읽고

#### 한 학기라는 레이스를 완주하기 위해선

명나디(일본 · 융일지 21)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찬란함으로 가득하다. 이처럼 우리학교와 학생들은 어 느덧 여름방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한 학기를 잘 마 무리하기 위해선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번 외대학보 1079 호는 스예비군 학습권 보장스도서관 공간부족스고립・ 은둔 청년 실태△학교시설 실내공기 문제를 다루며 한 학기라는 레이스를 완주하기 위한 이정표로 활약했다.

3면에선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 다. 현재 예비군법은 출석에 관한 부분만을 보호하고 있 으며 학습권 침해에 대해선 대안이 미비한 실정이다.이 에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학생회는 '예비군 수업 자료 지원 시업'을 시행 중이지만 학습권을 보장하 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른 대학교에선 예비군 학생 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자료 제공뿐만 아니 라 사후조사 및 학사일정 조율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 다. 예비군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되기 위해선 학교 구 성원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에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교수△학교△학생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4면에선 도서관의 공간 부족 문제가 디뤄졌다. 학생들 은 문제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열람실 이용자의 좌석 사 석화와 열람실 내 거리두기를 꼽았다. 우리학교 도서관 운영 내규는 이용수칙과 더불어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석화 자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 학생들은 단속 강화 및 실효적인 제재 처분 부 과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엄격한 제재만이 유일한 대

청명한 5월의 하늘 아래 우리학교는 학생들이 새기는 안은 아니기에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기회를 최대한 보 장하기 위해선 보다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5면에선 고립·은둔 청년 실태를 조명했다. 고립·은둔 청년 문제는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탓에 선행연 구와 실태자료가 미흡해 정책 수립에 난항을 겪었다. 하 지만 △민간△정부△지방자치단체는 고립·은둔 청년 증가의 주요 원인이 취업난이란 점을 파악한 후 구직 및 자립 의욕 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고안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혜가 모일 때 비로소 건강한 사회 로나아갈수있을것이다.

7면에선 우리학교의 실내공기질 현황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설캠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내공기질을 정기적 으로 측정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외대학보에서 직접 공 기질을 측정한 결과 학생들이 밀집하는 강의실과 도서 관 열람실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 다. 글로벌캠퍼스의 강의실 및 일부 스터디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대학교에선 해당 문제를 괸리하기 위해 전열교환기 등을 통해 환기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 나 우리학교는 설캠 도서관에만 전열교환기가 설치돼 있는 상황이다. 명확한 규정을 미련해 우리학교가 보다 쾌적한 배움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뾰족한 대안이 나 오길 희망한다.

이번 외대학보 1079호에선 우리학교와 사회 문제를 포 괄적으로 다루며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한 시시점을 제공 했다. 앞으로도 외대학보가 우리학교와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주는 담론 의장이되길 바란다.

1079호 학보를 읽고

### 학교와 함께하는 학생들의 청춘을 위해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중간고시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공기의 냄새가 변해있다. 해야 할 것이다. 습하고 따뜻한 초여름의 향기와 행사로 들썩이는 대학교는 많은 청춘을 설레게 했다. 이번 외대학보 1079호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스도서관 공간 부 족 문제△고립·은둔 청년 문제△우리학교 실내공기질 현황

3면에선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 해 디뤘다. 매번 예비군 훈련이 시행될 때마다 학습권 침해 피해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존재했다. 그 러나 학교 측은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은 채 이를 개별 교원의 재량에 맡겼다. 결국 학교 측의 소극적인 자세는 예비군 학생들의 수업 결손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지 못했 다. 학교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학생들의 불만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4면에선 우리학교 도서관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공간 부족 문제를 조명했다. 수요가 급증하는 시험 기간엔 도서관 열람 석 좌석을 차지하기 위한 소리 없는 싸움이 펼쳐진다. 도서관 열람실 여석 부족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좌 석의 사석화다. 우리학교 도서관 열람실은 모바일도서관 애 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좌석을 예약해야 한다. 그러나 앱을 통해 좌석을 예약하더라도 막상 자리에 가면 다른 학생 의 개인 물품이 적치돼 있어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처럼 열람실 좌석의 사석화는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학생들 의 불만을 자아냈다. 학교는 시석화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수 립하고 편법행위 적발할 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5면에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고립·은둔 청년 문제에 대해 주목했다. 극심한 취업난은 고립 청년의 수를 증가시켰다. 고 립 청년의 수는 나날이 늘지만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은 단편적인 지원에만 그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문제를 겪고 있는 청 년들의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 한 고립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정적 지원 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7면에선 우리학교의 실내공기질 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외 대학보에서 우리학교 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취재한 결과 기 준치를 훨씬 넘어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수업 집중의 방해요인이 되는 것에 대해 이쉬움을 표했다. 학교가 학생들의 학습 공간이자 생활 공간 이란 측면에서 학생들이 오래 머무르는 공간을 가꾸는 것은 곧 학생을 존중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학습환경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하루빨리 이산화탄소 농 도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실내공기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을 모색하길 바란다.

이번 외대학보 1079호의 기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학보사 기 자들의 애정을 고스란히 느끼게 했다. 매번 새롭고 신선한 주 제를 발굴하며 학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청춘을 바치는 외대학보 기자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낸다. 더 나 아가 외대학보의 목표처럼 학교와 함께하는 학보사 기자들 과 학생들의 청춘이 빛나길 바란다.

국 · 부장 고정칼럼

### 진실을 추구하는 힘

'사실을 넘어 진실을 추구할 열정이 있는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외 대학보 수습기자 모집에 지원했을 당시 심금을 울렸던 문구다. 외대학보에서 활동한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 말을 곱씹으며 진실이 아닌 사실만을 좇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본다. 현실에서 사실을 넘어 진실을 추구하는 일은 꽤나 어렵다. 비판적인 시각과 함께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하지 않는다면 학내 구성원에게 단순한 사실만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를 지치게 만드는 장애물도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

이번 외대학보 1080호에선 과도기를 맞이한 우리학교의 이야기를 담았다. 우리학교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다음 해부터 양 캠퍼스에 AI융합대학을 신설한다. 이를 위한 학제개편도 대부분 마친 상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학내 구성원 간의 합의는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AI융합대학 신설이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했고 학교는 이에 답했다. 그러나 간 담회만으로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긴 역부족이었다. 아직도 신설 학과와 관련된 논의가 뜨겁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학교는 학내 구성 원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진정한 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비상대책위

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다. 더불어 모종의 이유로 비상대책위원장단 (이하 비대위원장단)이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총학생회장 대행 체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하는 글캠 학생대표 평의원의 자격 논란이 불거져 학사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학생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도 변동이 발생했다. 그리고 글캠 총학의 학생자치는 서서히 빛을 잃어갔다.

외대학보 기자들은 해당 시안을 깊이 있게 다루려 부단히 노력했다. 본질을 꿰뚫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모으고 분석했다. 현실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다방면에서 취재원도 구했다. 그러나 정작 글캠 비대위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유의미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 바로 오늘 비대위의 비대위원장단 인준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글캠 비대위가 과도기를 지나 학생자치의 불씨를 다시금되살리길 간절히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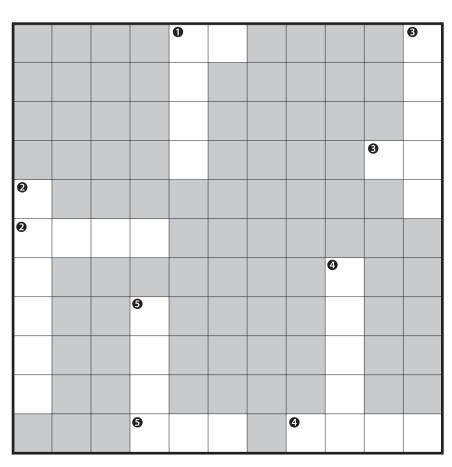
김상연 편집장 04sangyeon@hufs.ac.kr

# 외대만평



양채은(경상 · GBT 20)

# 십자말풀이



#### 가로

- 지난해까지 우리학교 예산 부족의 핵심적인 원인으론 △등록금 ○○△동문기부금의 미비△코로나19 상황과 맞물린 학교 수익 사업의 부진 등이 꼽힌다. (7면 참조)
- 2. 과방 및 동아리방이 존재하는 쇼어문관스인문경상관쇼ㅇㅇㅇ 등의 건물 내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함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3면 참조)
- 지난 11일 우리나라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WHO의 PHEIC 해제 발표에 따라 코로나19 ○○ 조치를 대부분 완화하기로 하며 코로나19의 엔데믹을 선언했다. (8면 참조)
- 4. 영국의 PIPCU(Polic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에선 △경찰청△영국광고주연합회△영국인터넷광고국△저작권자가 동참해 '○○○○' 을 진행했다. (12면 참조)
- 5. 이번 시융합대학 OOO에선 많은 쟁점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지만 학교 측의 효용성 있는 답변에 관한 필요성은 여전하다. (5면 참조)

#### 세로

- 1. 지난 11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이문일공칠에서 '2023학년도 1학기 ○○○○리더십장학재단 정학생 간담회와 정학증서 수여식' 이 개최됐다. (2면 참조)
- 2. 글로벌캠퍼스의 불안정한 학생자치 운영 체제는 글로벌캠퍼스 내부뿐만 아니라 우리학교 ○○○○○와 같은 기구의 활동도 제한하고 있다. (4면 참조)
- 3. 노키즈존은 지난 2011년 0000의 한 식당에서 10세의 아동이 종업원과 부딪히며 화상을 입은 사건을 계기로 확산됐다. (9면 참조)
- 4. 하지만 해당 절차에서 A 씨의 ○○○○ 논란이 발생해 하생 대표 평의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면 참조)
- 5. 실제로 지난 3월 에타엔 훕스돔 식당 옆에 위치한 편의점 ○○○○ 위생상태를 고발하는 글이 게재됐다. (3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사설

### 그 많던 싱아, 그 많던 꿀벌, 그 많던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갔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소설가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 제목이다. 싱아는 개성 박적골에서 살던 박완서의 유년시절, 아무데서나 찾아볼 수 있는 들풀의 이름. 벗겨 먹으면 달콤했던 그 싱아를 누가 다 먹어버려서 서울에는 싱아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는 걸까? 서울에는 싱아가 하나도 없고 외래종 아카시아가 있는데 아카시아 는 느끼하기만 하다. 작가는 싱아를 통해 6·25를 겪으며 잃어버렸던 것들, 사라지는 것들을 그리움으로 호출한다. 전쟁은 박완서에게는 벌레의 시간이라는 치욕과 상처를 안겨주었고, 박완서에게 글쓰기는 그 벌레의 시간을 증언하는 일, 그러한 증언을 통해 벌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사라지는 것들은 이처럼 기억 속에서나 박제된 형태로 남는 것인가. 사라진 목숨, 사라진 생명은 모두 어디로 가는가. 5월 22일은 생물다양성의 날이었다.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생물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들을 보전하기 위해 제정된 날로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정부 행사로 기념하고 있다. 정부 행사로 기념한다고는 해도 사라지는 다양한 생물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는 많지 않다. 광릉요강꽃, 갯활량나물, 대청부채, 만병초, 미선나무, 복주머니난, 부채붓꽃, 섬향나무, 정향풀... 한반도 자생멸종 위기 식물들의 이름이다. 기후변화와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로 영영 사라질 위험에 처한 식물이 224종에 달한다고 한다.

한반도 생물다양성의 근간이 되는 식물의 멸종 위기가 커지는 상황은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생물종 중 식물 자원의 30%가 멸종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약 1300만종의 지구 생물종 중에서 2050년까지 25% 정도가 멸종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 속도는 자연적인 멸종 속도에 비해 1천배가 빠른 속도라고 한다. 생물다양성이 감소되면 먹이사슬이 붕괴된다. 생물자원을 잃는 일은인류가 기대고 있는 생존의 터전을 잃는 일, 이처럼 생태계 파괴는 인류의 생존과직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 본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는지, 그 많던 꿀벌은 왜 사라졌는지, 그 많던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기후위기에 대한 질문을 취업이나 생계 등 현실적인 걱정과 동떨어진 문제로 여기는 이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사라지는 것들을 떠올리는 일은 지금 여기 삶의 터전에 대한 질문과 직결된다.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나? 우리가 몸담은 공간은살만한 곳인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 24.6명으로 OECD 평균 11. 1명보다 22배 높은 수치다.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계속 안고 가는 가운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점이다. 힘들게 낳은 귀한 아이를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놓치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이렇게나 열심히 하루하루 이어가는 삶의 공간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살아있는 것들을 보듬지 못하는 곳, 끝없는 경쟁 논리가 사람들의 숨을 턱턱 막게 하는 사회에서, 청춘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를 포기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것도 자연스럽다. 사라지는 것은 꽃이나 꿀벌만이 아닌 것이다. 옛 것은 무조건 밀어대고 새 건물을 올리면서 골목이 사라지고, 골목에서 재잘대던 아이들 웃음소리도 사라진다. 경제적 불안정과 높은 양육비를 출산률 저하의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단순히 비용 문제만은 아니다. 왜 다들 그렇게 불행한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욕망을 추동하는 힘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효율성과 경쟁, 생산성과 경제 논리, 이윤과 힘의 논리. 우리 사회를 추동하는 주된 힘이다. 모두가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미래 세대의 행복을 고민하지 않는다. 모두가 기술 발전을 이야기하고 기술이 노동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들떠 있지만, 공생의 윤 리, 공적 가치, 환경 문제는 도외시한다. 지금 우리에게 도착한 위기는 풀에서 사람 에 이르기까지 생명 가진 존재들이 살아가려면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지를 돌아보 지 않은 결과다.

학교는 어떠한가? 사회가 요구하는 무한 경쟁의 원리를 그대로 들여온 이윤 추구의 공간인가? 혹은 이 사회의 변화를 진지하게 살피며 다함께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방향성을 고민하는 가치 창출의 공간인가? 위기 앞에서 우리의 반성은 이런질문과 함께 해야 한다. 우리 몸이 깃든 지구가 정말 위기라는 현실 인식, 생명의 가치를 일상에 긴밀하게 연결하고 학문의 다양성을 살리는 일, 한국과 세계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더 촘촘히 잘 하는 끈기와 지혜의 대학을 그려본다.

·정은귀(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04sangyeon@hufs.ac.kr	

#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정은귀

\_\_\_ \_ · \_ **편집장** 김상연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 OTT 시장을 위협하는 불법 사이트,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은?

지난 14일 OTT\* 플랫폼 콘텐츠를 무단유포하는 불법 사이트인 '누누티비'가 서비스를 종료했다. 미디어 업계가 누누티비를 고소하며 정부 측에서 지속적인 압박이 들어가자 결국 사이트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 업계에선 서비스의 불법유통이 끊이질 않는다며 제2

의 누누티비가 등장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미디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콘텐츠 불법유통 문제에 관해 정미선 KBS 지식재산권부 차장과 이야기를 나눠 보자.

정미선 KBS 지식재산권부 차장

# Q1. 불법 사이트들로 인해 OTT 플랫폼이 피해를 입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불법 사이트로 인한 피해는 크게 두 차례에 걸쳐 나타납니다. 1차적 피해는 영상 저작물의 실질적 저작권자인 방송사와 그 아래의 요소 권리자를 향하죠. 제작사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엄청난 제작비를 투여하고 이때 사용된 대부분의 제작비는 후행 되는 콘텐츠의 유통 수익으로 환원됩니다. 즉 티빙이나 웨이브와 같은 합법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하면 그 콘텐츠를 플랫폼 가입자들에게 유료로 제공해 제작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불법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해당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 광고 수익을 취득하면 제작에 투여한저작권자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셈이 돼요. 또한 불법 사이트로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무료로 콘텐츠를 시청하는 경우 굳이 합법 OTT 플랫폼을 이용할 필요성이 사라져 수익 면에서 손해가 발생합니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동영상 사이트 순위 중 누누티비의월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기록하며 22위를 차지했어요.  $\triangle$ 넷플릭스  $\triangle$ 티빙 $\triangle$ 웨이브가 각각  $\triangle$ 55위 $\triangle$ 82위 $\triangle$ 109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누누 티비의 이용자 수와 그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체감할수 있죠.

#### Q2.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들이 지속 적으로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불법 사이트의 주요 사업 목적은 광고 수익에 있어요.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의 경우 주로 도박이나 성매매 광고가 게재되고 상당수의 이용자들은 콘텐츠를 이용하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광고 배너를 클릭하게되죠.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광고 수익을 수취해 어디에 활용하는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지만 도박이나 성매매와 같은 광고가 게재된다는 점을 비춰볼 때 불법적으로 수익을 취득하고 있다고 파악됩니다.

# Q2-1. 불법 사이트들이 생겨나는 구조와 방식이 궁금합니다.

불법 사이트들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라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이하 CDN)\*\*를 사용하죠. 이 경우 국내 캐시 서버(Cache Server)\*\*\*에 복제된 웹 사이트로 연결되면 국제관문망에 설치된 차단 장비를 통과하지 않기에 Internet Service Provider(이하 ISP)\*\*\*\*가 접속 차단을 해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가 불법 사이트 차단 여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해요. 이를 토대로 불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수시로 사이트명을 변경해 △구글(Google)△네이버(Naver)△텔레그램(Telegram) 등을 통해 영업을 이어나갑니다.

#### Q3. 불법 사이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방송 통신위원회 관련법이나 저작권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나 요?

적자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존재하기에 불법 사이트가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히 규정하긴 어려워요. 그러나 불법 사이트로 인한 미디어 업계 피해액은 약 4.5조 원으로 추정되며 합법 플랫폼보다 월등히 높은 콘텐츠 시업 수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불법 사이트로 인해서 단지 재산상의 피해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사이트에 게재되는 광고는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 도박 혹은 성매매와 관련이 있어요. 따라서 도박에 중독되거나 성매매 광고에 노출되면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 Q4. 불법 사이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방송 통신위원회 관련법이나 저작권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나 요?

김우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법 사이트 운영 자 및 ISP 등을 상대로 적용되는 법령엔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있어요.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르면 법원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죠. 또한 저작권법  $\Delta$ 제133조의  $2\Delta$ 제133조의  $3\Delta$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의거해 불법 복제물에 대한 삭제명령 및 시정권고를 합니다. 시정요구의 근거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triangle$ 제21조 제3호 $\triangle$ 제21조 제4호 $\triangle$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호가 있어요.

이외에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하 변 의원)은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의무를 CDN 사업자에게도 부과한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의무는 ISP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었는데 변 의원의 입법안에 따르면 그 책임이 CDN 사업자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이죠.

# Q4-1. 해외에선 불법 사이트들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국의 PIPCU(Polic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에선 △경찰청△영국광고주연합회△영국인터넷광고국△저작권자가 동참해 '창조작전'을 진행했어요. 창조작전에선 저작권자가 불법 웹사이트를 PIPCU에 보고하고 저작권 침해가 계속될 경우 PIPCU는 해당 사이트의 등록을 해지합니다. 이에 사이트 운영에 따른 광고 수익 지급이 중단되며 해당 웹사이트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배너광고가 게재돼 이용자들에게 사이트를 이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죠.

미국에선 △광고대행사협회△광고주협회△광고협회 등 22만 명 이상 의 저작권자와 50개의 회사 및 기관이 참여해 불법 사이트들을 제재하 고 있어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에 게시된 합법 광고주들에게 해당 사이트에 광고 게시 중단을 요청함으로써 광고주가 불법 웹사이트를 식 별하고 광고를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죠. 또한 모든 광고주와 대행사에게 불법복제방지서약을 장려해요.

#### Q5. 불법 사이트 규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있을까 요?

불법 사이트 규제를 위해선  $\triangle$ 광고대행사 $\triangle$ CDN $\triangle$ ISP 등의 책임이 중 요해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해당 업체들의 저작권 침해 방조에 따른 단

속이 이뤄지고 있어요. CDN 업체와 관련해선 일본의 민사소송 사례가 있어요. 지난 2018년 일본 출판사 네 곳이 클라우드플레어에게 불법 사이트의 무단 복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2019년에 클라우드플레어에서 해당서버를 이용하는 일본 불법 사이트의 데이터 복제를 중지시켰습니다. 지난해엔 일본 출판사에서 CDN 캐시 서버를 운영하는 클라우드플레어를 상대로 42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죠.

미국에선 VPN 제공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영화제작사에서 VPN 업체가 VPN 제공뿐만 아니라 불법 복제를 조장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를 제기했어요. 이 외에도 웹 호스팅(Web Hosting)\*\*\*\*\*에 관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영화사가 웹 호스팅 제공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를 제기했죠. 불법 복제를 허용하는 VPN 제공 업체의 계정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호스팅 제공업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VPN 계정을 해지하지 않은 조치는 저작권 침해에 기여한 것에 대한 대위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Q6. 지난 2월 영상저작권보호협 의체가 불법 사이트 누누티비로 인해 입은 피해액이 약 5조 원이 라고 밝히며 해당 사이트를 고발 했습니다. 불법 사이트를 고발할 시 이로부터 수익을 회수하는 것 이 가능한가요?

현재 누누티비에 대해 부산경찰청과 문화체육부 특수사법경찰측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압수수색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과거 다른 저작권 관련 소송이 진행됐을 때도 법원은 방송사가 청구했던 금액인 5 억 원 중에서 약 7천만 원 정도만 배상액으로 인정했죠. 해외엔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 사례가 많기에 권리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액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도쿄지방법원은 2시간가량의 영화를 10분으로 정리한 유튜브(YouTube) 동영상의 광고수익에 대해 원고측이 5억 엔(한화약 48억 원)을 청구하자 이를 전부 인정한 사례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위와 같은 해외사례를 참고해 피해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요.

#### Q7. 불법 사이트 이용을 막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하나요?

먼저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감시와 확인을 통해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 및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누누티비와 유사한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 따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발견 즉시 차단하는 유연성도 필요하죠. 저작권 보호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실질적인 해외 저작권 정책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현재 저작권 연차보고서와 같은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콘텐츠 업계에 적용하기엔 아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대응을 위한 연구 또한 필요해요.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원할 때 방송을 보여주는 VOD 서비스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인터넷 사용 환경에서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분산된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해서 전달해 주는 시스템

\*\*\*캐시서버(Cache Server): 인터넷 이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와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를 임시저장하여 빠르게 제공해 주는 서버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개인이나 기업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웹사이트 구축 등을 제공하는 회사

\*\*\*\*\*웹 호스팅(Web Hosting): 대형 통신업체나 전문 회사가 자신들의 웹 서버를 개인 또는 개별 업체에 제공하거나 임대해 주는 것

임채린 기자 06chaelin@hufs.ac.kr

